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민 서

2024년 2월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

지도교수 손 일 삼

박 민 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박민서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승 수

위 원 손 일 삼

위 원 이 수 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12월

Analysis of the Printmaking Area
of High School Art Textbooks revised in 2015

Min-Seo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Il-Sam S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eung-Soo Lee, Prof. of Art Education

Thesis director, Il-Sam Son, Prof. of Art Education

Thesis director, Su-Mok Lee, Prof. of Art Educati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

박 민 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일 삼

판화 영역은 예부터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판화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매체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기록물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판화가 인쇄의 역사와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던 만큼, 판화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쓰임을 도맡고 있다. 그 예로는 평판, 요판, 활판 등의 복합적인 인쇄 기술이 들어간 지폐와 공판 기법으로 인쇄한 전자기기의 회로, 실크 스크린을 통해 무늬를 입힌 옷과 가방, 평판화의 원리를 사용한 오프셋 인쇄 책 등이 그러하다. 또한 판화는 우리 일상에 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미술 영역 내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대 미술에서 판화는 전통 기법을 사용한 작품부터 타 장르와의 융합 작품까지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2015년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사회의 시각 문화 가치를 이해하며, 주제에 따라 매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화 영역은 판화의 특성을 토대로 기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으므로 타 분야와의 융합 및 확장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인정 교

과서인 ‘일반 선택’ 미술 교과서 10종을 분류하여 교과서 내 판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총 4장의 큰 틀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제한점을 이야기하고, 제 II 장에서는 판화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III 장은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 집필진 분석, 출판사별 판화 영역 비율 분석, 교과서 내 판화 단원 내용 분석,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제 IV 장은 마지막 장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된 집필진 전공 분석을 통해 판화 전공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체 10종의 미술 교과서 중 판화 단원을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가 4종 있었다.

셋째, 판화 영역 도판 내 균형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판화 재료에 관한 도판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현대 판화 도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편찬된 책으로 교과 과정을 담고 있는 주교재이다.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학습 증진을 돕는 매개체이므로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술 교과서는 미술 수업의 중요한 자료로써 시대적 문화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에게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미술 교과서 속의 판화 영역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으며 미술 교과서 내 시대 상황에 맞는 판화교육의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판화는 타 장르와 쉽게 융합할 수 있는 매체이기에 창의적인 다양한 미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화의 장점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을 통해 확장된 판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교과서 내 구성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이러한 창의·융합 교육에 발맞춘 미술 교과서를 토대로 열린 시각으로 미술을 바라볼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확장된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본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제한점	2
II. 관화의 개념 및 필요성	3
1. 관화의 특성과 분류	3
2. 관화교육의 중요성	9
III.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관화 영역 분석	15
1.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	15
2. 집필진 분석	20
3. 출판사별 관화 영역 비율 분석	21
4. 교과서 내 관화 단위 내용 분석	25
5. 관화 단위별 세부 내용 분석	53
IV.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	16
〈표 2〉 고등학교 일반선택 미술 교과 목표	17
〈표 3〉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일반 선택 내용 체계	18
〈표 4〉 ‘표현’ 영역 성취 기준	19
〈표 5〉 출판사별 판화 단원 유무	21
〈표 6〉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기법별 도판 분류	22
〈표 7〉 판화 단원 분석	25
〈표 8〉 ㈜금성출판사 판화 단원	27
〈표 9〉 미래엔 교과서 판화 단원	31
〈표 10〉 미진사 판화 단원 분석	34
〈표 11〉 씨마스 판화 단원 분석	39
〈표 12〉 지학사 판화 단원 분석	44
〈표 13〉 천재교과서 판화 단원 분석	49
〈표 14〉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	53
〈표 15〉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	56

<표 16> 판화 원리 도판 수록 58

<표 17>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 수록 59

그림목차

〈그림 1〉 정명국, 「소통의 문」, 2022, 한지에 흑연 프로타주, 반사필름에 아크릴, 실크 스크린, 133×125cm	9
〈그림 2〉 김동기, 「바위섬」, 2018, 실크 스크린 작품을 잘라 설치, 가변 크기, 작가소장	9
〈그림 3〉 오민예, 「벽에 새긴」, 2019, 활판 인쇄, 레터프레스, 18×15.5×5cm ..	10
〈그림 4〉 키키 스미스, 「세상의 빛」, 2017, 로신 프라하 종이에 시아노타입, 41.3×57.2cm	10
〈그림 5〉 윤동천, 「분노」, 2017, 돌, 스텐실, 7.5×19.5×15cm, 작가소장	11
〈그림 6〉 강애란, 「디지털 북 프로젝트」, 2019, LED 조명, 책 42권, 나무·아크릴 책장, 280×150×35cm, 작가소장	11
〈그림 7〉 정부과천청사역 출구 계단 손잡이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	12
〈그림 8〉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13
〈그림 9〉 집필진 전공별 분석	20
〈그림 10〉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분류	23
〈그림 11〉 판화 종류에 따른 기법별 설명 중 오목판화 부분	27
〈그림 12〉 전통 판화에서 확장된 현대 판화	28
〈그림 13〉 이론 옆에 위치 시킨 알고 가기	29

〈그림 14〉 판화 용어가 적힌 본 교과서 내용	29
〈그림 15〉 미래엔 판화 단위 사진	31
〈그림 16〉 소단원 및 핵심 역량	32
〈그림 17〉 스스로 확인하기	32
〈그림 18〉 우리 생활에서 판화가 활용된 예	34
〈그림 19〉 학생들의 핑거프린트 기법 작품 사진	35
〈그림 20〉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장 찍기	35
〈그림 21〉 판화 퍼즐	36
〈그림 22〉 ‘정리와 보충’ 평판화 부분	37
〈그림 23〉 판화의 용도와 특성	39
〈그림 24〉 판화의 확장	40
〈그림 25〉 마무리 표현 활동, 비 오는 날의 판화 제작과정	41
〈그림 26〉 비 오는 날의 판화 학생 작품 부분	41
〈그림 27〉 연계 활동	42
〈그림 28〉 생각 깨우기	44
〈그림 29〉 볼록 판화 도판	45
〈그림 30〉 현대 판화의 새로운 정의	45

<그림 31> 활동 영역, ‘판으로 찍어서 설치하기’	46
<그림 32> 부록에 있는 판화 서명 방법과 순서	47
<그림 33> 판화 단원	49
<그림 34> 생각 열기	50
<그림 35> 현대 판화의 확장	50
<그림 36> 판화의 에디션 넘버	51
<그림 37> 활동 01 ‘공판화 기법으로 인물 군상 제작하기’	51
<그림 38>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	54
<그림 39> 판화 단원 내 기법 분류	55
<그림 40>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기술의 진보는 디지털 시대를 열었으며, 디지털 매체의 발전은 예술의 범위를 넓히는 데 일조했다. 예술 영역 중 하나인 판화 또한 판화의 확장성에 관한 이야기가 20년 전부터 전해져왔으며 현재는 현대 미술과 다원 예술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¹⁾ 판화의 기법은 비단 예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크 스크린을 통해 나타낸 이미지, 지폐, 도장, 전자기기의 회로와 오프셋 인쇄 책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판화는 미술과 일상 내에서 타 분야와 쉽게 융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매체이다. 따라서 판화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시대적 흐름을 따라 판화가 타 분야와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균형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 교육에서 판화에 대한 이해도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판화교육에 있어 학습자가 전통 판화와 현대 판화 어느 한쪽에 치우쳐 학습하는 것이 아닌 판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화는 구분 지어지는 영역이 아닌 긴밀한 연계성을 띤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판화 영역을 분석하여 판화 이론 및 도판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교육에서 판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현 시행되는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판화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셋째, 교과서 판화 영역 분석 및 분류한 결과가 어떠한가?

1) 국립현대미술관(2020), 「판화, 판화, 판화」, 국립현대미술관, p.21.

2. 연구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2015 개정 인정 교과서인 ‘일반 선택’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10종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관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화의 특성과 분류, 관화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관화의 개념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관화 영역 분석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과 집필진 분석, 출판사별 관화 영역 비율 분석, 교과서 내 관화 단원 분석, 관화 단원별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을 작성하는 현시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 개정 인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관화 영역을 분석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의 경우 2025년에 고등학생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화 영역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둘째, 교과서는 2015 개정 인정 교과서인 ‘일반 선택’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10종을 선정하였다. 그중 관화 단원이 있는 6종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관화 단원이 없는 교과서 4종의 경우 교과서 내 관화 영역 도판 수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 판화의 개념 및 필요성

판화는 현대 미술 내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높은 실용성을 띤 매체로 남아있다. 본 장에서는 판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판화의 다양한 효용성과 교육적 의의를 통해 판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판화의 특성과 분류

1) 판화의 특성

판화는 나무나 금속 등 다양한 판재를 이용하여 판을 제작하고, 먹이나 잉크를 통해 종이나 천, 혹은 다른 물질 등에 복수로 찍어 내는 미술을 뜻하며 판화로 제작된 작품(프린트 prints)을 말한다.²⁾ 판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판화가 가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판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 표현 미술이다. 판화는 판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회화이다. 판화는 판에서 찍혀나온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새겨진 판과 판을 찍는 데 필요한 도구로 나누어져 있다. 판화는 판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회화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재의 특성이나 제판, 인쇄 과정에서 판의 그림이라는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역발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³⁾

둘째, 복수성의 성질을 갖는다. 회화 작품의 경우 작품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면 판화는 평판화 기법의 하나인 모노타이프를 제외하고 여러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판화의 특성은 다른 미술 작품보다 대중들에게 널리 확장되기 쉬웠으며,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판화의 복수 원본

2) 임영길(2014), 「판화」, 미진사, p.15.

3) 정이연(2017), “현행 중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영역 분석을 통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판화지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5~6.

회소성에 의의를 두고 에디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하였다.⁴⁾ 판화의 특성은 현대에 들어서 판화의 복수성을 활용한 확장된 작업 방식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판화는 계획성을 가진다. 판화는 일반 회화와 달리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는 차례대로 원화 단계, 제판 단계, 인쇄 단계이다. 원화 단계에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제판 단계에는 이를 토대로 판을 제작한다. 마지막은 제작한 판에 잉킹을 한 후 종이에 찍는 인쇄 단계를 통해 판화가 완성하게 된다.⁵⁾ 이처럼 판화는 단계마다 알아야 하는 순서가 있고 필요한 재료들도 각기 다르므로 계획성에 따른 작업이 필수적이다.

넷째, 이미지가 좌우 반전으로 찍힌다. 판화는 판을 통해 인쇄하는 간접성의 특성에 따라 종이의 이미지가 판의 이미지와 좌우로 바뀌어 찍힌다. 단 예외적으로, 공판화의 경우 판에 원하는 이미지의 구멍을 낸 후 뚫린 구멍 위로 잉크가 통과하므로 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찍힌다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판화는 활용성이 높다. 판화는 우리 일상 속 많은 활용성을 띤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는 프린팅된 티셔츠와 가방, 도장, 특수카드, 현수막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우리의 가까운 삶의 반경 안에 판화의 쓰임새가 녹아있다는 점에서 판화는 높은 활용성을 띠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화는 판을 매개로 하여 이미지를 찍어 내는 것을 말한다. 판화의 특수한 성질은 기법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양하므로 타 분야와 융합하여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판화의 다양한 응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판화의 개념을 토대로 기법을 차례대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항에서는 판화를 기법별로 분류하여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4) 이훈이(2007), “미술 교과서의 판화분야 내용 분석 연구-고등학교 「미술과 생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6.

5) 추미영(2010), “판화를 통한 창의적인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8.

2) 판화의 분류

판화는 사용하는 판의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판재를 종이에 찍어 내는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블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가 있다.

(1) 블록판화

블록판화란 평평한 판에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각칼 등의 재료 용구를 통해 판을 파낸 후 블록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잉킹을 하여 찍어 낸 것을 말한다.⁶⁾ 블록판화의 판화 기법으로는 목판화, 리놀륨 판화, 지판화, 에칭 블록판화, 프로타주 등이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판화이다. 목판화의 판재는 나무판으로서 크게 널목판과 눈목판이 있다. 널목판은 주로 부드러운 판재의 성질에 따라 자유롭게 판재가 가능하며, 눈목판은 단단한 판재의 성질로 정교한 묘사를 하기 적합하다. 널목판화의 제판 용구로는 창칼, 세모 칼, 둥근 칼, 평 칼 등이 있으며 눈목판화의 경우 그레이버를 사용한다.

둘째, 리놀륨 판화는 건축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리놀륨을 사용한다. 리놀륨은 판에 결이 없고 부드러워 자유로운 제판이 가능하다. 제판 용구로는 목판화용 칼이 있으며 잉크는 유성잉크를 사용한다.

셋째, 지판화이다. 지판화는 종이를 통해 제작한 판화를 뜻한다. 지판화는 블록판화의 분류에 속하지만, 판을 조각도로 파낸 타 블록판화에 비해 여러 종이 층을 붙이고 뜯어내 자유로운 요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닐, 낙엽, 형겔, 털실 등을 직접 붙여 다양한 질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⁷⁾

넷째, 에칭 블록판화는 에칭 작업을 통해 제판된 아연판이나 동판을 블록판법으로 프린팅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프로타주는 나무판이나 잎, 천처럼 면이 울룩불룩한 것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의 무늬가 베껴지는데, 그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응용한 기법을 뜻한다. 원뜻은 ‘마찰하다’ 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frotter’ 에서 유래

6) 박남신(1994), 「목판화와 동판화= Relief & Intaglio」, 도서출판 예경, p.42.

7) 박정환(2019), 「종이판화」, 디자인숲, p.29.

했으며 이 기법은 무의식이나 우연을 중시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하곤 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독일 태생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1891~1976)가 있다.⁸⁾

(2) 오목판화

오목판화는 니들, 뷰린과 같은 날카로운 용구를 사용하여 동판, 아연판과 같은 금속판에 직접 새기는 ‘새김법’, 산으로 부식하여 음각 형상을 만들어내는 ‘부식법’을 통해 제판하는 것을 말한다. 새김법을 사용한 기법으로는 잉레이빙, 드라이포인트, 메조틴트가 있고, 부식법을 사용한 기법으로는 에칭으로 제작한 하드그라운드, 소프트그라운드, 리프트그라운드, 딥에칭, 애크틴트 등이 있다.

첫째, 잉레이빙은 그레이브(grave) 즉, ‘새기다’에서 나온 말로서 동판화 기법 중 가장 오래되었다. 제판 시에는 뷰린이라는 도구를 통해 판을 새긴다. 뷰린은 날카롭고 예리한 선을 그을 수 있어 정밀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판종보다도 마모가 적은 편에 속하므로 많은 매수를 프린팅할 수 있다.⁹⁾

둘째, 드라이포인트는 끝이 날카로운 드라이포인트 니들을 사용해 판면에 직접 점이나 선을 자유롭게 그려 흠을 만든 후 오목한 흠에 잉크를 밀어 넣어 프레스로 찍어 내는 기법을 말한다. 판재는 아크릴판이나 동판, 아연판 등을 사용한다.

셋째, 메조틴트는 로커(rocker)라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동판에 무수한 메를 놓아 화면을 검게 만든 후 스크레퍼와 버니셔를 통해 점차 밝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찍어 냈을 때 보이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의 톤이 특징이다.

넷째, 하드그라운드는 판면의 겉에 하드그라운드를 바르고 말린 뒤 에칭 니들로 선을 그려서 하드그라운드를 벗겨내고 부식액에 담가 부식하는 에칭을 말한다. 부식액에 담그는 시간에 따라 부식의 정도가 달라지며 필요시 여러 번의 부식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도 한다.

다섯째, 소프트 그라운드는 하드그라운드에 비해 건조가 많이 걸리며 덜 마른 막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프트 그라운드는 이러한 덜 마른 상태에서 질감이 두드러지는 천 조각 같은 소재를 사용해 질감이 짙히도록 작업하는 기법이다.

8) 월간미술 편(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p.507.

9) 구자현(1989), 「版畫 =Print making :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 미진사, pp.120~122.

여섯째, 리프트 그라운드(ground)는 설탕 용액으로 그린 부분을 녹여낸 후 이를 부식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재료는 물을 끓여서 설탕을 포화상태로 만든 후 흑색 안료를 섞어 사용한다. 판면에 그린 설탕 용액이 마르면 그라운드를 칠하고 말린 뒤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설탕 용액 부분이 지워진 판을 부식하여 프린팅한다.¹⁰⁾

일곱째, 딥에칭은 판면에 그라운드로 그림을 그리고 깊이 부식하는 에칭 기법을 뜻한다. 여러 번의 부식을 통해 생기는 판의 층의 결과물이 특징적이다.

여덟째, 애쿼틴트(etching)는 산으로 부식하는 ‘부식법’에 속하며 송진 가루를 사용하여 면적인 톤을 주는 기법을 말한다. 판은 주로 철, 아연, 구리 등과 같은 얇은 금속판을 주로 사용한다. 애쿼틴트의 특징인 미세한 반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송진 가루가 대표적으로 쓰이나 라커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평판화

평판화란 평평한 판면 위에 이미지를 그린 후 찍어 내는 판화의 한 종류이다. 판 표면에 직접 그린 후 그대로 찍어 내기 때문에 다른 판화 기법에 비해 다양한 회화적 표현이 가능하다. 평판화의 종류에는 석판화와 모노 타입이 있다.

첫째, 석판화에는 석회석 석판화와 금속판 석판화가 있다. 석회석 석판화와 금속판 석판화의 진행 과정은 유사하지만, 화학작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석회석 석판화는 석회석 표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구멍들이 있으므로 그 구멍들 속까지 화학작용이 일어나며 강한 부식으로 인해 물과 기름층이 확실하게 분리된다.

둘째, 모노 타입은 ‘Mono’와 ‘Type’, 두 개의 뜻을 가진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Mono’는 그리스에서 1로 쓰인 숫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 ‘단일의’, ‘유일한’ 등의 뜻을 의미한다. ‘Type’은 글씨체, 인쇄할 문자, 인쇄의 활자체, 인쇄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노 타입은 판화에서 쓰이는 에디션(edition)에 있어 복수적이지 않으며 단일의 에디션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진 기법이다.¹¹⁾

10) 네이버 지식백과, 「리프트 그라운드」, <https://terms.naver.com/>, 2023년 11월 20일.

11) 송대섭(2004), “모노 타입과 모노 프린트의 판화 매체적 특성 연구”, 「조형예술학연구」, 제11권, 한국조형예술학회, p.81.

(4) 공판화

공판화란 판에 원하는 이미지의 구멍을 낸 후 잉크를 통과시켜 프린팅하는 것을 뜻한다. 뚫린 구멍 위로 잉크가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판화의 기법들과는 달리 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¹²⁾ 공판화의 기법으로는 실크 스크린과 스텐실이 있다. 실크 스크린은 공판(孔版)에 의한 판화로 세리 그래프(serigraph)라고도 한다. 이는 실크 스크린의 원리가 등사판과 같으나 등사판이 종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실크, 섬유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실크 스크린은 다른 판식에 비해 잉크가 많이 묻고 색상이 선명하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찍부터 포스터와 같은 상업 미술에 많이 활용됐다.¹³⁾ 이처럼 찍을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앤디 워홀(Andrew Warhola Jr, 1928-1987)이 있다. 스텐실은 원하는 이미지를 오려낸 후 잉크를 통과시켜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도안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표현이 가능하며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5) 기타

미술 영역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타 분야와의 활발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판화 또한 판을 매개로 전통 기법을 타 장르와 결합하기도 하고,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판화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작가들은 카메라, 레이저 커팅, 사진 전사, 디지털 프린팅, 3D 프린트 등의 새로운 매체와 판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판화의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장된 판화 영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화는 판재를 종이에 찍어 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처럼 판화 기법은 종류에 따라 표현 방법 및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융합 및 확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12) 류재만·손지현(2017), 「미술과 교재연구 및 교수법」, 교육과학사, pp.24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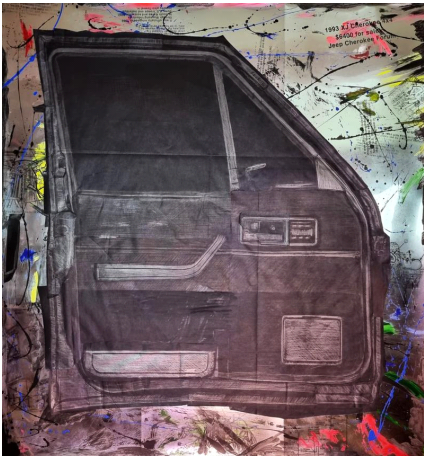
13) 월간미술 편(1999), 전계서, pp.286~287.

2. 관화교육의 중요성

본 절에서는 관화교육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차례대로 현대 미술에서의 관화, 일상생활 속 관화, 관화교육의 의의이다. 본 절은 각 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관화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1) 현대 미술에서의 관화

현대 미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삶 속 예술을 향유 하는 것과 같다. 현대에 이른 관화는 현대 미술에서 전통적 기법과 더불어 확장된 관화 영역을 통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된 관화란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 발전하는 매체 그리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말한다. 본 항에서는 현대 미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관화 영역의 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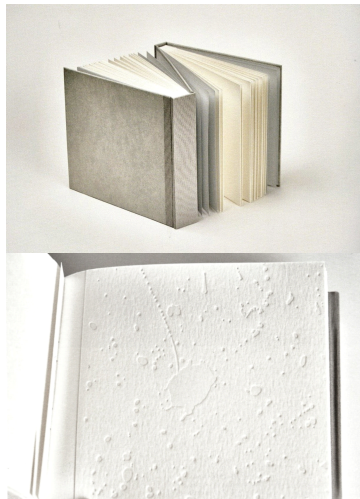
<그림 1> 정명국, 「소통의 문」, 2022



<그림 2> 김동기, 「바위섬」, 2018

<그림 1>은 프로타주 기법을 토대로 자동차의 형상을 떠낸 작품이다. 작품은 실제 모델이 된 자동차와 같은 크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프로타주 기법을 통해

요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는 시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의 금속 질감을 프로타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판화 영역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그림 2>는 복수 제작이 가능한 판화의 특성을 통해 입체로 설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 옛 빨간 벽돌집을 드로잉하고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낸 후 직접 자르고 붙인 설치 작업이다. 이는 실크 스크린의 복수성을 활용한 입체 작품으로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오민예, 「벽에 새긴」, 2019



<그림 4> 키키 스미스, 「세상의 빛」,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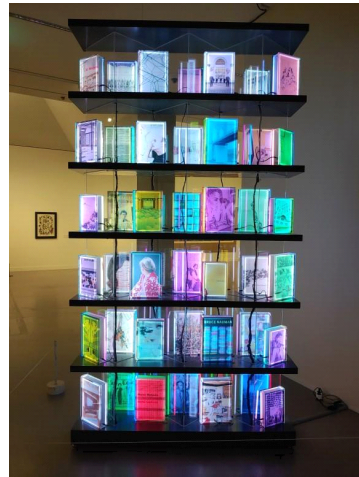
<그림 3>은 작가가 1년간 천미립 기획자와 손현선 작가의 편지를 관찰하고 소통한 것을 토대로 작업한 ‘읽히지 않는 책’ 작품이다. 종이의 양면에는 점자가 있으며 이는 삽화와 활판을 통해 만들어졌다. 작품은 조명을 통해 오목하게 도드라진 점자의 입체감 있는 명암을 살펴볼 수 있다.¹⁴⁾ <그림 4>는 시아노타입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2005년 Venice East River에 머무르는 동안 햇빛에 비친 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으며, 2016년 판화 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다. 아래는 페이스 갤러리에 적힌 본 작품에 대한 작가의 기법 설명이다.

14) Seoul Art Guide, 「오민예 작가 벽에 새긴」, <https://www.daljin.com/blog/>, 2023년 11월 22일.

“나는 바늘로 플렉시글라스 판에 에칭을 하고 판을 접촉 인쇄로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코팅된 로진 종이에 사진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노출시켜 두 가지 형태를 결합시켰습니다. *세상의 빛*은 여러 장의 판을 만들어 다양한 순서로 겹겹이 쌓아 만든 것입니다. 노출 시 이미지가 종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에 따라 선명해지는 순간과 이미지가 부드러워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순간이 발생합니다.”¹⁵⁾



<그림 5> 윤동천, 「분노」, 2017



<그림 6> 강애란, 「디지털 북 프로젝트」, 2019

<그림 5>는 돌에 ‘짱돌’이라는 단어를 스텐실한 작품이다. 작가는 스텐실 기법 활용을 통해 판화가 평면에서 입체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에 판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은 빛으로 책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초기 작품에서 판화 작업에서 필름으로 출력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미지를 금속으로 만든 박스 안에 넣었으며 라이팅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버추얼을 작업하였다. 이는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판화와 디지털 매체의 융합을 통한 확장을 보여준다.¹⁶⁾ 이처럼 본 항에서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확장된 판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판화 영역이 가진 간접적 매개체의 특성이 작품 내 크게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15) PACE, 「키키 스미스 세상의 빛」, <https://www.pacegallery.com/>, 2023년 11월 23일.

16) Youtube, 「강애란 작가 판화」, <https://www.youtube.com/>, 2023년 11월 24일.

2) 일상생활 속 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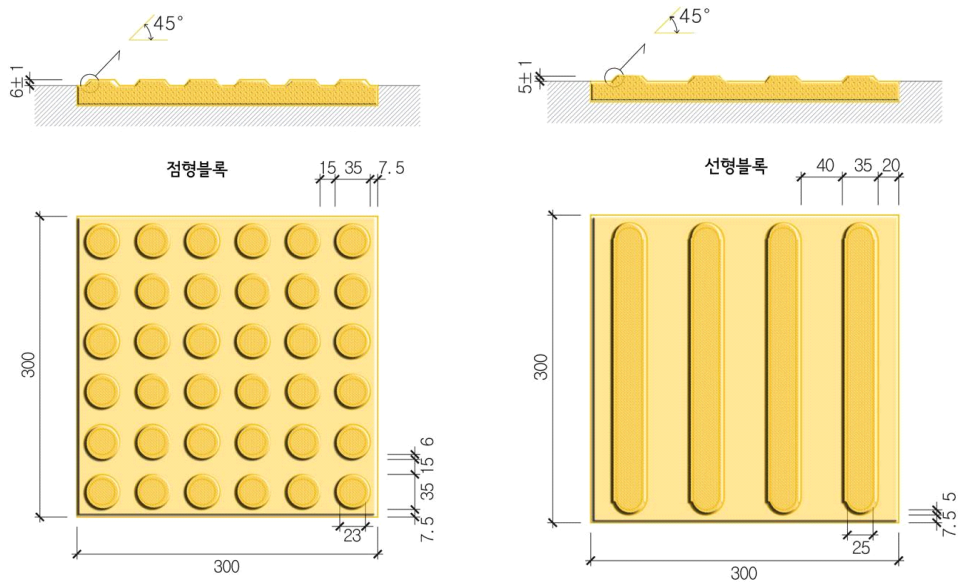
판화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해 온 예술 영역이자 삶 속 발명품이다. 예부터 판화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인쇄 매체 역할을 통해 일상의 중요한 쓰임새를 도맡았다. 이러한 판화의 역할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록판화를 활용한 도장과 특수카드, 오목판화의 지폐 및 정밀한 인쇄물, 평판화의 오프셋 인쇄, 공판화인 스텐실,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티셔츠, 가방, 컵 등의 이미지, 간판, 현수막 등이 있다. 이처럼 판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활용성이 큰 영역이다. 이와 더불어 판화의 활용성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예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자 안내판과 인도의 보도블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7> 정부과천청사역 출구 계단 손잡이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

<그림 7>과 <그림 8>은 모두 요철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블록함과 오목함의 차이를 촉각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점자는 가로로 2점, 세로로 3점 모두 6개의 블록한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조합하여 64개의 점형을 만든다.¹⁷⁾

17) 시각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 「점자」, <http://m.kbufac.or.kr/>, 2023년 11월 26일.



<그림 8>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상 보행 활동에 정확한 보행 위치와 보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가 있다. 점형블록은 36개의 원뿔 절단형으로 되어있으며 위치 표시용으로 시작점, 분기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는 잠깐 멈추고 주위를 살피라는 뜻이 있으며 앞에 차도가 있거나 갈림길이 있는 곳에 있다. 선형블록은 방향 표시용으로 목적 방향으로의 일정한 거리까지를 알려주는데 사용된다.¹⁸⁾ 이외에 점자 도서, 양각 버튼과 카드 등 다양한 사물에도 점자 표시가 있으며 최근 경향으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한 생활 가정용품의 영역까지 점자 표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판화 기법을 활용한 예로 가득하다. 판화는 판화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작품으로서의 승화도 가능하지만, 일상 속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매개체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판화 기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를 통한 고찰을 통해 판화의 가치 및 활용성을 확장 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18) 김민식(2010),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스템 디자인 연구 -선형블록과 양각사인 시스템의 유기적조합-”,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p.21.

3) 판화교육의 의의

판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미술과 일상생활 속에서 쓰임새 있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본 항은 이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주변의 판화 영역을 인지하고 이를 배워야 하는 판화교육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화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화의 제작과정에는 구상과 계획성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판화 제작과정 속지를 통해 판화만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각 과정마다의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판화는 판을 새기거나 파기, 닦아내기, 문지르기, 반복적으로 찍어 내기 등의 과정에서 눈과 손, 다양한 근육 운동의 협응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신체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판화의 특성인 간접 표현과 복수성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회화 표현에 자신이 없는 소극적인 학생도 판화의 다양한 기법 활용을 통해 즐겁게 미술 창작을 할 수 있다.

넷째, 실생활에서 쓰이는 판화의 예를 알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는 판화의 분류별 기법과 프린팅 방법을 통해 생활 속 적용되는 판화의 다양한 사례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술과 삶 속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¹⁹⁾

다섯째, 판화는 현대 미술에서 타 분야와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판화교육을 통해 판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면 타 분야와의 창의·융합적 교육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판화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다양한 판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판화의 폭넓은 쓰임새와 교육적 의의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판화의 높은 활용성과 교육적 의의는 학습자가 판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 효과 및 창의적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과 삶 속의 관련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에 가치가 있다.

19) 류재만·손지현(2017), 전계서, pp.240~241.

Ⅲ.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관화 영역 분석

본 장에서는 본문 주제와 관련된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을 살펴보고, 집필진 분석, 출판사별 관화 영역 비율 분석, 교과서 내 관화 단원 내용 분석, 관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 순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

본 절에서는 논문 주제인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관화 영역 분석을 위해 이와 관련한 2015 개정 내용 및 미술 영역을 살펴보았다. 이는 순서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재상,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재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과 과학 기술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하여 지식의 창조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람을 뜻한다.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첫째, 자기관리 역량, 둘째, 지식정보처리 역량, 셋째, 창의적 사고 역량, 넷째, 심미적 감성 역량, 다섯째, 의사소통 역량, 여섯째, 공동체 역량이 있다.²⁰⁾

본 논문 주제인 관화 영역은 이러한 핵심 역량 가운데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성이 있다. 학습자는 관화교육을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타 분야와 융합이 쉬운 관화의 장점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20) 윤옥한(2021), 「삶은 현대 교육과정론 이론과 실제」, 양서원, p.43.

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는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뉜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된다.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에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이며 진로 선택은 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심화 과정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

교과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보통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을 위한 과목
전문 교과		전문 교과 I		전문 교과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목적 고등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대상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출처: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p.62.에서 재구성.

3)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고등학교 일반선택은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 미술 교과에서는 학습자가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미술의 효과적 활용을 토대로 주제와 매체를 확장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고등학교 일반선택 미술 교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다. 첫째, ‘체험’ 영역은 학습자가 자신과 주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며 미술과 타 분야를 관련지을 수 있고 이를 삶 속에서 미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표현’ 영역은 다양한 방식의 주제 및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작

품 제작과정을 계획하며 그 과정 속 표현 매체 탐구를 통해 작품의 표현 방법 또한 익히도록 한다. 셋째,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의 특징 및 작가,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비평 관점을 배우며 작품을 판단 및 평가한다. 미술 교과는 학습자가 여러 미술 활동을 통해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고등학교 일반선택 미술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고등학교 일반선택 미술 교과 목표

- 가.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 미술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미술 활동을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자신과 세계의 조화를 모색하고, 시각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며,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 (2) 주제와 매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미술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를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 (4)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를 계발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출처: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pp.30~31.

고등학교 일반선택 미술 교과는 <표 2>와 같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 및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제시한 ‘창의·융합형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고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대한 고등학교 미술과 일반 선택 내용 체계는 다음 제시하는 <표 3>과 같다.

<표 3>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일반 선택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체험	지각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는 바탕이 된다.	자신과 세계	인식하기 모색하기 참여하기 연계하기
	소통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도구로서 시각 문화를 형성한다.	시각 문화의 가치와 역할	
	연결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 등과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표현	발상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하는 것은 표현의 토대가 된다.	주제의 확장	탐색하기 표현하기 활용하기 확장하기 성찰하기
	제작	작품 제작은 주제나 아이디어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 매체 등을 계획하고 표현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용	
			표현 매체의 융합	
		성찰과 보완		
감상	이해	미술 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미술 문화의 교류	이해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판단하기
	비평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품 비평	

출처: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p.31.

4) 성취 기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있는 관화 단원은 ‘표현’ 영역에 속한다. ‘표현’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창의적 표현 및 연계 융합 능력, 스스로 미술 활동 성찰을 발전시키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발상 방법을 통한 새로운 주제 탐색을 하고,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를 다양하게 응용 및 표현하며, 표현 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성찰하여 작품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등학교 미술 교과 표현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표현’ 영역 성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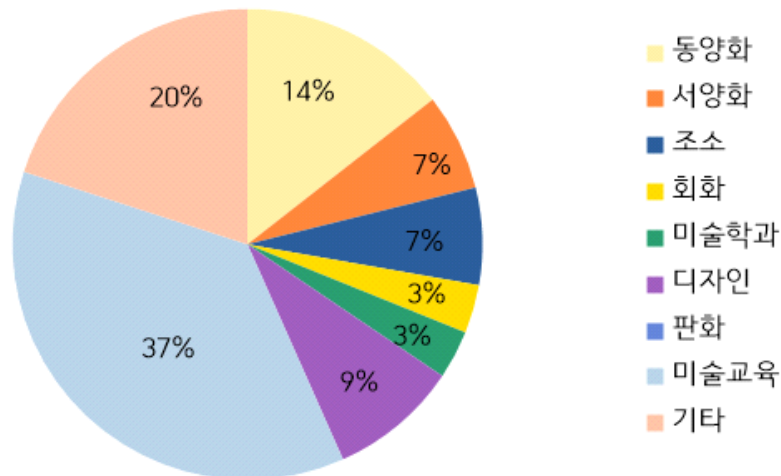
- | |
|---|
| [12미02-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
|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 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
| [12미02-04] 주제와 표현 의도, 재료와 표현 방법, 매체, 표현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12미02-05] 작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다음 작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p.33.

2015 개정 주요 키워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주 배경은 국가·사회적으로 미래 사회가 융합기술을 토대로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근거 하에 제시되었다. 미술 영역은 학습자가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관화 영역 또한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춘 디지털 매체와의 융합을 통해 미술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는 미술 교과 내 표현영역에서 이야기하는 표현 매체의 융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방향성이 같다.

2. 집필진 분석

집필진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술에 대한 이해도 및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술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출판사별 집필진 전공을 분석하여 미술 전공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필진 전공 분석은 정보가 제공되어있는 6종의 교과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이는 차례대로 (주)교학도서,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와이비엠, 천재교과서이다. 집필진의 학위가 여러개인 경우 전공별 개수를 1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집필진 전공별 분석

6종의 교과서에 표기된 전체 전공 수 비율을 살펴보았을 시 미술교육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기타 전공은 20%, 동양화는 14%, 디자인은 9%, 서양화와 조소는 각각 7%, 회화와 미술학과는 각각 3%였으며 판화과는 0%였다. 집필진 전공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과 기타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경우 미술이론, 현대미술사, 테크놀로지학, 미디어공학, 예술교육, 교육 행정 및 고

등교육, 디자인 교육, 조형예술, 공예, 장식미술, 응용 미술 등의 전공들을 모두 기타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비율이 크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필진의 전공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4종의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미진사, 지학사, 해냄에듀의 전공 표기가 필요하다.

셋째, 현대 미술에서 매체를 활용한 판화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술 교과서 내 판화 전공자가 없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출판사별 판화 영역 비율 분석

출판사별 판화 영역 비율 분석은 판화 작품 도판을 기법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판사별 판화 도판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판화 작품 도판은 판화 단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과서 내 판화 도판 총개수를 정리하였다. 출판사별 판화 영역 분석을 하기에 앞서 판화 단원이 있는 교과서와 없는 교과서를 표로 정리하였다. 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출판사별 판화 단원 유무

출판사	판화 단원	판화 자료
(주)교학도서	×	○
(주)금성출판사	○	○
미래엔	○	×
미진사	○	×
비상교육	×	○
씨마스	○	×
와이비엠	×	×
지학사	○	○
천재교과서	○	×
해냄에듀	×	×
계	6	4

총 10종의 교과서 중 6종은 판화 단원을 다루고 있었고, 4종은 판화 단원을 다루지 않았다. 판화 단원을 다루는 출판사는 차례대로 (주)금성출판사, 미래엔, 미진사,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과서이다. 타 4종의 교과서는 판화 단원이 따로 없었으나 (주)교학도서의 경우 대단원 ‘2 미술과 소통’, 소단원 ‘1 미술의 표현과 대화’에서 평면 작품 소개로 판화 도판을 한 페이지 반 분량으로 제시하여 이는 판화 자료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외 교과서 참고 자료인 부록에 실려있는 자료 또한 본 단원의 판화 도판과 겹치지 않을 시 도판 분류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총 10종의 교과서 내 판화 도판을 표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판화 영역 내 균형 있는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판화 영역 분석 시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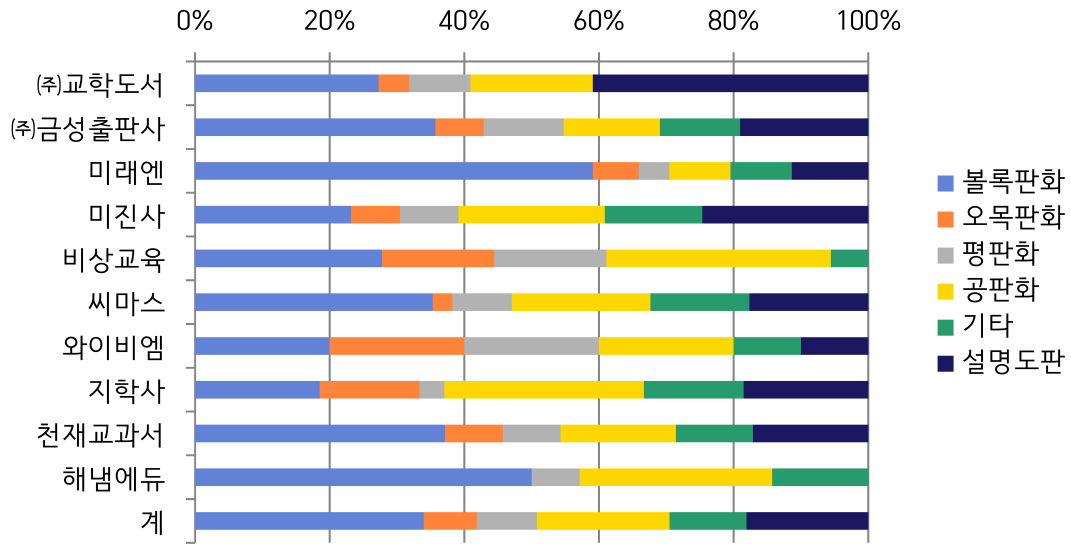
첫째, 판화 단위 및 판화 기법 명칭이 기재된 도판을 중점으로 분류한다.

둘째, 서로 다른 판화 기법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하거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경우 ‘기타’로 기재한다.

셋째, 퍼센트(%) 표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표 6>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 기법별 도판 분류

출판사 \ 판화 기법	블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기타	설명 도판	계
(주)교학도서	6	1	2	4	0	9	22
(주)금성출판사	15	3	5	6	5	8	42
미래엔	26	3	2	4	4	5	44
미진사	16	5	6	15	10	17	69
비상교육	5	3	3	6	1	0	18
씨마스	12	1	3	7	5	6	34
와이비엠	2	2	2	2	1	1	10
지학사	5	4	1	8	4	5	27
천재교과서	13	3	3	6	4	6	35
해냄에듀	7	0	1	4	2	0	14
계	107	25	28	62	36	57	315



<그림 10>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분류

(주)교학도서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 도판이 40.90%, 블록판화가 27.27%, 공판화가 18.18%, 평판화가 9.09%, 오목판화가 4.54%, 기타가 0.00%이다.

(주)금성출판사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35.71%, 설명 도판이 19.04%. 공판화가 14.28%, 평판화와 기타가 각각 11.90%, 오목판화가 7.14%이다.

미래엔은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59.09%, 설명 도판이 11.36%, 공판화와 기타가 각각 9.09%, 오목판화가 6.81%, 평판화가 4.54%이다.

미진사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 도판이 24.63%, 블록판화가 23.18%, 공판화가 21.73%, 기타가 14.49%, 평판화가 8.69%, 오목판화가 7.24%이다.

비상교육은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공판화가 33.33%, 블록판화가 27.77%, 오목판화와 평판화가 각각 16.66%, 기타가 5.55%, 설명 도판이 0.00%이다.

씨마스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35.29%, 공판화가 20.58%, 설명 도판이 17.64%, 기타가 14.70%, 평판화가 8.82%,

오목판화가 2.94%이다.

와이비엠은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가 각각 20.00%, 설명 도판과 기타가 각각 10.00%이다.

지학사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공판화가 29.62%, 블록판화와 설명 도판이 각각 18.51%, 오목판화와 기타가 각각 14.81%, 평판화가 3.70%이다.

천재교과서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37.14%, 공판화와 설명 도판이 각각 17.14%, 기타가 11.42%, 오목판화와 평판화가 각각 8.57%이다.

해냄에듀는 교과서 내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50.00%, 공판화가 28.57%, 기타가 14.28%, 평판화가 7.14%, 오목판화와 설명 도판이 각각 0.00%이다.

전체 도판 수 중 기법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블록판화가 33.96%, 공판화가 19.68%, 설명 도판이 18.09%, 기타가 11.42%, 평판화가 8.88%, 오목판화가 7.93%이다.

출판사별 판화 영역 도판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블록판화가 가장 높았으며 오목판화가 가장 적었다.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블록판화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타 기법 도판 비중을 위해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전체적으로 출판사별 오목판화와 평판화의 비중이 작아 이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해냄에듀에는 오목판화와 설명 도판이 없고, 비상교육은 설명 도판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화는 기법별 재료의 사용법 및 특징이 다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판화의 기법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균형 있는 도판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판화 작품 도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판화 재료 및 기법별 사용법 등 판화와 관련한 설명 도판에 대한 필요성을 뜻한다.

4. 교과서 내 판화 단위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인정 교과서인 ‘일반 선택’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10종 중 판화 단원이 있는 6종을 중심으로 판화 단위 내용을 분석하였다. 6종의 교과서를 전체 페이지 수 내 판화 단위 페이지 수 비율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판화 단위 분석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소단원	쪽수	전체 쪽수	비율(%)
(주)금성출판사	Ⅱ 발상과 표현	판으로 찍는 세상	p.50~53	101	3.96%
미래엔	표현	Ⅱ 평면의 세계-판에 의한 표현	p.48~49	123	1.62%
미진사	표현	15. 판화는 생활이다	p.74~77	113	3.53%
씨마스	3. 평면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판화 표현	p.50~55	125	4.8%
지학사	Ⅱ 표현하는 아름다움	05. 찍어 내는 미술	p.48~51	107	3.73%
천재교과서	3. 창의적인 표현	07 판을 이용한 표현, 판화	p.72~75	124	3.22%

총 6종의 출판사 중 씨마스가 판화 영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금성출판사, 지학사, 미진사, 천재교과서, 미래엔 순으로 판화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 내 판화 영역은 다른 소단원 쪽수와 균등하게 분포된 편으로 각 세부 소단원 쪽수별 내용은 출판사별 판화 단위 분석에 기재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각 출판사의 교과서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판화 단위를 분석하였다. 판화 단위는 이론의 짜임새와 도판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단위 외에 대단원 마무리 활동이나 부록 등 판화 내용을 보완한 교과서의 경우 판화 단위 분석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1) ㈜금성출판사

(1) 교과서 구성 방식

(주)금성출판사의 구성은 대단원 도입, 소단원 제재 학습, 표현 활동, 학습 평가, 학습 정리, 부록 활동지로 되어있다. 대단원의 경우 체험, 표현, 감상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마다 ‘Ⅰ 미술과 삶’, ‘Ⅱ 발상과 표현’, ‘Ⅲ 감상과 비평’이라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 대단원 도입 부분에는 대단원 학습 개관을 통해 학습자가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 목차를 제시하는 등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본 단원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 능력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대단원별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 간략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별 소단원은 23개로, 각 소단원이 체계적으로 전개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소단원 전개 순서는 ‘제재 학습-활동-성취 평가’ 구조로 되어있다. 각 소단원 안에는 학습 목표, 제재 명, 탐구활동, 핵심 역량/학습 방법/융합 단원, 도움말, 알고 가기, 활동, 성취 평가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학습 정리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으로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교과서 뒤에 부록 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에는 학습 정리 및 보충 외에 ‘인명사전’, ‘내가 만드는 미술사 연대표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 스스로 부족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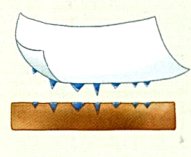
(2) 판화 단원 분석

소단원은 총 23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2쪽에서 많게는 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화 단원은 표현 영역인 ‘발상과 표현’ 대단원에서 ‘5. 판으로 찍는 세상’ 소단원으로 4쪽 분량이다. 판화 단원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판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주)금성출판사 판화 단위

대단원	II 발상과 표현		
소단원	5 판으로 찍는 세상	쪽수	p.50~53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의 기본 원리를 알고 종류에 따른 기법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판화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기법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가쓰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오윤 <김장>, 뒤러 <멜랑콜리아 I>, 황규백 <음악회>, 로트레크 <르 디방 자포네>, 샤갈 <섬의 연인들>, 위홀 <메릴린 먼로>, 바자렐리 <비바 하름>, 루돌프 <메니토바 III-팸비나 언덕과 건초 더미>, 정명국 <No. 3 미니>, 이서미 <등장>, 김영훈 <진실을 말해줘>, 김현주 <네오-플라워 0804> 학생 작품 <꽃과 사슴>, 학생 작품 <사랑해요>		



이해 판화



- 판면의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밀어 넣고 프레스의 강한 압력으로 찍어 내는 판화
- 판의 표현 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음.
- 세밀하고 날카로운 선의 효과
- 선의 겹침, 부식 효과에 따른 농담 표현 가능
- 지폐나 증권 등의 인쇄에서 정교함을 표현

- 에칭: 동판에 그림을 그린 후 부식시켜 찍어 내는 판화. 부식 정도에 따라 농담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애쿼틴트: 송진 가루로 판을 부식시켜 찍음. 명암 표현이 뛰어나고 색조의 범위가 풍부함.
- 메조틴트: 로커로 판에 직접 새겨서 표현. 풍부한 톤의 효과
- 드라이포인트: 니들로 판에 직접 새겨서 표현. 선의 효과

- 오목 판화 재료: 동판, 송진 가루, 뷰린, 니들, 로커, 롤렛, 스크레이퍼, 프레스, 질산, 판화용 잉크, 종이 등
- 에칭 제작 과정: 동판에 그라운드 바르기 → 강철 천으로 판면에 그림 새기기 → 질산 용액에 넣어 부식하기 → 질산과 그라운드 닦아 내기 → 잉크를 칠하고 판면의 잉크 닦아 내기 → 프레스에 넣어 찍기

◀ 인그레이빙 뒤러(Dürer, Albrecht/독일/1471~1528) 멜랑콜리아 I (인그레이빙/23.9 x 18.9cm/1514년)

◀ 메조틴트 황규백(한국/1932~) 음악회(메조틴트/28 x 34cm/1987년)

<그림 11> 판화 종류에 따른 기법별 설명 중 오목판화 부분

(주)금성출판사는 판을 사용하여 찍어 내는 판화의 특성을 소개하며 판화 종류에 따른 기법과 특징을 표로 제시하였다. 차례로 블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가 있으며 이를 개념 및 특징, 판화 기법 정리, 판화 재료와 제작과정, 기법별 판화 작품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11>은 2쪽에 걸쳐 가로로 구성한 판화 기법 설명 중 오목판화 부분을 편집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전통 판화의 중요한 요점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시하여 가독성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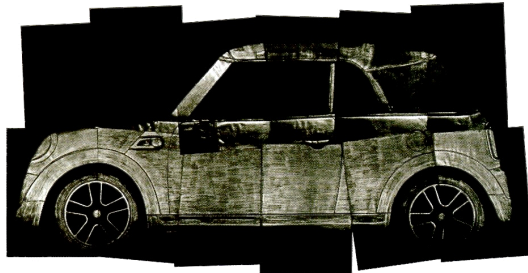
판화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현대 판화는 판을 깎거나 부식시키는 등의 전통적인 제작 기법에서 벗어나 컴퓨터와 첨단 기술 등의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판화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프린터 출력과 같은 원리로 인쇄되는 디지털 판화를 활용한다든가, 전통 판화 기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나 기법을 혼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판화를 만들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모색하고 있다.

☀ 현대 다양한 기법과 표현의 변화 작품을 찾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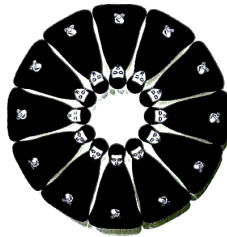
▲콜라주 형식의 친필로 일은 종잇조각을 판화지에 접착시켜 프레스에 눌러 찍는 친필로 기법으로 다양한 층의 공간과 색감을 살려 표현하였다. 루돌프(Rudolph, Miriam/지리과 0/1980~) 매니트버닝-웹이나 언리과 건조 데미중이며 예칭, 친필로/29×49cm/2010년



▲프로타주로 떠내기 실제 자동차의 표면을 종이로 덮고 흑연으로 문질러 형태를 떠내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프로타주와 흑연을 활용하여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금속성이 질감을 표현하였다. 정영국(한국/1968~) No. 3 미니(종이에 흑연 프로타주/190×369cm/2009년)



▲모노타이프와 팝업 단 하나의 작품만 얻을 수 있는 모노타이프 기법으로 이미지를 만든 후, 동화책에서 볼 수 있는 입체 형식으로 밑칠이 오리고 접어 표현하였다. 이서미(한국/1972~) 동경(모노, 타입, 팝업/65×51cm/2008년)



▲설치 판화 어두운 화면에서 점점 밝게 대상을 표현하는 예조티브 기법으로 판을 만들어 찍은 후 종이 인형처럼 하나하나 올려 내어 설치하였다. 김명중(한국/1970~) 전설을 담해 쥐(미조인트/70×70cm/2009년)

알고가기 판화의 넘버링

판화의 에디션과 넘버링 하나의 판으로 찍어 낸 작품 수를 에디션(Edition)이라고 하며, 판화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는 일을 넘버링(Numbering)이라고 한다. 판화는 하나의 원판으로 여러 장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판화가의 성향이나 판의 상태에 따라 한정된 수의 판화를 찍는다. 보통 각 작품의 하단에 총 매수와 함께 고유 번호, 제작 연도, 작품명, 서명을 연필로 기입하여 구분한다.

- 그 밖의 표기**
- A.P(Artist Proof): 작가 보관용 참고 작품이라는 표기
 - T.P(Trial Proof): 에디션을 내기 전에 찍어 보는 시험용 비배품 표기
 - P.P(Presentation Proof): 작가 개인의 작품 교환 또는 선용용 표기
 - C.P(Cancellation Proof): 더 이상 판을 찍지 않기 위해서 판을 훼손하고 그 증거로 표시하는 표기



▶ 디지털 프린트와 석판화 꽃과 잎의 구김 신문지를 따로 찍어 합성하고 디지털 프린트와 출력한 종, 석판화 기법으로 색을 입혔다. 김현주(한국/1969~) 네오-플라워 0804(디지털 프린트 석판화/60.5×56.5cm/2008년)

<그림 12> 전통 판화에서 확장된 현대 판화

다음 페이지에는 전통 판화에서 확장된 현대 판화 작품들을 제시하였다. 현대 판화 작품의 소개에서는 도판과 함께 표현 방법에 사용된 기법을 간략히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아쉬운 점은 작품 내용과 관련한 설명이 없어 이를 추가로 기재한다면 학습자가 판화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판으로 찍는 세상

- 판화의 기본 원리를 알고 종류에 따른 기법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판화의 특징을 실려 다양한 기법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핵심 역량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
 학습 방법 이해하기 ✓ 표현하기 ✓ 활용하기 ✓
 융합 단원 II-3 인물, 정물, 풍경 새롭게 보기

알고 가기 판화의 넘버링

판화의 에디션과 넘버링 하나의 판으로 찍어 낸 작품 수를 에디션(Edition)이라고 하며, 판화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는 일을 넘버링(Numbering)이라고 한다. 판화는 하나의 원판으로 여러 장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판화기의 상황이나 판의 상태에 따라 한정된 수의 판화를 찍는다. 보통 각 작품의 하단에 총 매수와 함께 고유 번호, 제작 연도, 작품명, 서명을 연필로 기입하여 구분한다.

그 밖의 표기

- A.P(Artist Proof): 작가 보관용 참고 작품이라는 표기
- T.P(Trial Proof): 에디션을 내기 전에 찍어 보는 시험용 비매품 표기
- P.P(Presentation Proof): 작가 개인의 작품 교환 또는 선물용 표기
- C.P(Cancellation Proof): 더 이상 판을 찍지 않기 위해서 판을 훼손하고 그 증거로 표시하는 표기

<그림 13> 이론 옆에 위치 시킨 알고 가기

또한 같은 페이지의 ‘알고 가기’에 있는 판화의 넘버링 내용이 앞장에 있는 ‘왜 직접 그리지 않고 판을 만들어 찍는 걸까?’라는 판화의 복수성을 설명하는 곳 옆에 위치한다면 더 적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재조합한 이미지는 <그림 13>과 같다.

- **오목 판화 재료:** 동판, 송진 가루, 뷰린, 니들, 로커, 롤렛, 스크레이퍼, 프레스, 질산, 판화용 잉크, 종이 등
- **에칭 제작 과정:** 동판에 그라운드 바르기 → 강철 침으로 판면에 그림 새기기 → 질산 용액에 넣어 부식하기 → 질산과 그라운드 닦아 내기 → 잉크를 칠하고 판면의 잉크 닦아 내기 → 프레스에 넣어 찍기

<그림 14> 판화 용어가 적힌 본 교과서 내용

판화 활동으로는 스텐실 가방 만들기 와 우드락 판화 제작하기가 있으며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제작 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교과서 부록에 있는 학습 정리 및 보충에서는 교과서 단원과 같은 내용인 판화 기법과 작품이 간략한 표로 정리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그림 14>와 같이 학습자들이 생소할 만한 송진 가루, 뷰린, 로커, 롤렛, 스크레이퍼, 프레스, 질산 등 단어에 대한 사진 자료와 보충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보충 설명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판으로 찍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삶과 연관된 판화의 확장성을 토대로 전통과 현대 판화의 연계점을 잘 연결하였다. 판화의 기법을 표로 길게 나열하여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법별 많은 도판을 수록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쉬운 점은 교과서 내 현대 판화의 확장이 잘 설명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 활동 중 하나 정도는 그와 관련한 활동을 제시하여 연계성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미래엔

(1) 교과서 구성 방식

미래엔의 구성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자기 주도 창의 활동, 영역 마무리 활동으로 되어있다. 대단원은 체험, 표현, 감상으로 총 3개이며, 대단원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가시성을 높였다. 색깔은 차례대로 체험은 빨강, 표현은 파랑, 감상은 갈색이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연계와 실생활에 관련된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미술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은 자기 주도적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실생활 수업 소재 및 다양한 교과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나타낸다. 미래엔은 대단원 총 3개, 중단원 총 10개, 소단원 총 51개로 타 출판사와 비교하여 소단원의 수가 많은 편이다. 소단원에는 학습 목표, 핵심 역량, 활동 과제, 스스로 확인하기, 더 생각해 보기, 읽을거리, 심화 활동, 용어/부가 설명이 있다. 부록 대신 필요한 부분은 소단원 페이지에 배치하여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자기 주도 창의 활동은 중단원별로 마지막에 있으며 이는 소단원 학습 내용 중에서 학습자가 깊이 탐구해 볼 부분이나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역 마무리 활동은 대단원 학습 내용 속에서 확장·심화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과정으로 제시되어있다.

(2) 판화 단위 분석

소단원은 총 51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2쪽에서 많게는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화 단원은 대단원 표현 영역에서 중단원 ‘II 평면의 세계’, 소단원 ‘판에 의한 표현’ 으로 2쪽 분량이다. 판화 단위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판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미래엔 교과서 판화 단위

대단원	표현		
소단원	II 평면의 세계 - 판에 의한 표현	쪽수	p.48~49
학습 내용	●판에 이용한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판화를 제작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위홀 <마릴린 먼로 2면화>, 콜비츠 <과부1>, 변월룡 <쉬코토프스키>, 송대섭 <개펄>, 그라프 <오스트리아 황제 축하제>, 장욱진 <자동차가 있는 풍경>, 학생 작품 <가을>		

표현 II 평면의 세계
판에 의한 표현

판화는 판에 이미지를 그리거나 새긴 후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 내는 회화의 한 종류이다. 같은 그림을 여러 장 만들어 낼 수 있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판화는 판재의 종류와 기법에 따라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변주는 형식에 따라 블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궁판화도 구분된다.

▶ 판화에 쓰이는 용어를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

▶ **이탈리아의 판화 대가인 엔리코 만다타의 작품인 '마릴린 먼로 2면화'를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해 보자.**

▶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판화를 제작할 수 있다.**

▶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판화를 제작할 수 있다.**

▶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판화를 제작할 수 있다.**

다색 드라잉(포인트)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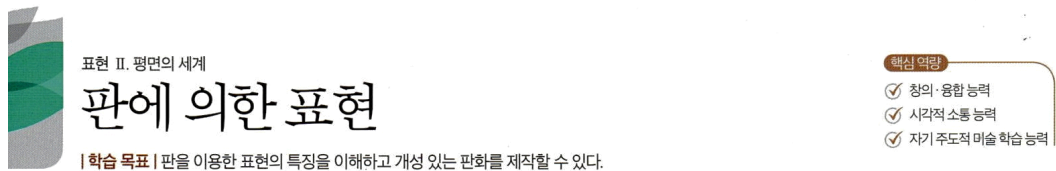
1. 잉크(inks)로 두 면에 이미지 새기기
2. 롤러로 잉크 칠하기
3. 면 양면의 잉크로 4. 잉크 묻혀 원목판 두 판 완성하기
5. 판에 잉크 묻혀 원목판 완성하기

▶ **주제 표현에 알맞은 판화 기법을 선택했는가?**
▶ **판화 기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 사용 방법을 이해했는지?**

▶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판화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15> 미래엔 판화 단위 사진

미래엔 출판사는 소단원 도입부에 판화의 개념과 특징, 분류를 글로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약한 글에 비해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도판 역시 판화 종류별 작품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판화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정보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그림 16> 소단원 및 핵심 역량

본 소단원에는 <그림 16>과 같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이 있다. 이는 차례대로 창의·융합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다. 하지만 판화 개념과 연결 짓지 않고 판화 기법별 작품만 수록한 것, 다색 드라이포인트를 작업한 학생 작품과 제작 과정, 그리고 ‘더 생각해 보기’에 나와 있는 미술시장의 디지털 판화 이야기로는 학습자가 핵심 역량을 기르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



- ① 주제 표현에 알맞은 판화 기법을 탐색하였는가?
- ② 판화 기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그림 17> 스스로 확인하기

소단원 가장 아래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림 17>을 보면 ‘1. 주제 표현에 알맞은 판화 기법을 탐색하였는가?’, ‘2. 판화 기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와 같이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단원에 이에 대한 이론 및 도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엔 아쉬움이 있다.

미래엔 교과서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내용들을 담기 위해 소단원의 수가 많다. 교과서의 특성상 소단원 영역별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관화 영역 내 도판이 크게 위치하여 작품을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따라 나머지 세부적 요소를 구성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관화 영역 내 관화 도판 크기를 조금 줄이고 중요한 이론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3) 미진사

(1) 교과서 구성 방식

미진사의 구성은 대단원, 소단원으로 되어있다. 대단원은 체험, 표현, 감상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의 경우 표지가 따로 없고 대단원 마무리를 정리하는 핵심 용어, 정리 노트가 없어 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영역을 구분 지으며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해당 페이지 옆에 체험, 표현, 감상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별 소단원은 총 18개로 소단원 앞에 숫자를 붙여두어 구분하기가 편리하다. 각 소단원 안에는 학습 목표, 키워드, 활동, 알고 가기, 발전 학습, 정리와 보충, 성취 평가가 있다. 정리와 보충에는 탐구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해보면 좋을 내용들을 기재하여 심화학습을 돕고 있다.

(2) 관화 단원 분석

소단원은 총 18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4쪽에서 많게는 8쪽이며, 미술사 소단원은 같은 경우 흐름을 끊지 않는 주제의 특성상 2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화 단원은 대단원 표현 영역에서 소단원 ‘15. 관화는 생활이다’로 4쪽 분량이다. 관화 단원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관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미진사 판화 단위 분석

대단원	표현		
소단원	15 판화는 생활이다	쪽수	p.74~77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특징을 살려 새로운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 ●생활에서 판화가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로지 <쌍둥이>, 이서미 <바다와 하늘이 하나(부분)>, 학생 작품 <지문 얼굴 이모티콘>, 듀카스 <너구리>, 학생 작품 <내 손의 토끼>, 학생 작품 <킷눈>, 학생 작품 <조류 보호>, 학생 작품 <반려견 사랑>, 학생 작품 <나를 잊으셨나요?>, 학생 작품 <맨홀 판화>, 에셔 <8개의 머리(부분)>, 피카소 <렘브란트와 두 여인>, 황규백 <두 개의 우산>, 레제 <곡예사 마리아>, 고든 <찬란한 어둠>, 위홀 <청록색 메릴린>, 세잔의 <대수욕도>(1906년)가 프린트 된 티셔츠(Y사 제품)		



<그림 18> 우리 생활에서 판화가 활용된 예

<그림 18>은 우리 생활 속 판화 기법이 활용된 예시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실크 스크린을 사용한 가방, 옷, 천, 그라비아 인쇄를 한 과자봉지, 평판, 활판, 요판 등 복합적인 인쇄 기술을 활용한 지폐, 공판 기법을 사용한 전자기기의 회로, 오프셋 인쇄를 사용한 책과 같이 다양하게 수록된 예시들은 판화가 우리 삶 속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적합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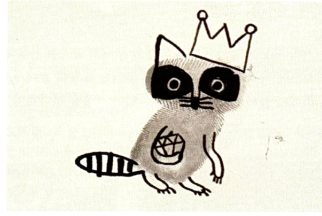
활동1 찍기 놀이로 만드는 이야기

손가락 지문을 찍어 재미있는 형태를 표현해 보자.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대부분 표면에 요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으면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볼록 판화와 같은 원리이다.

준비물 스탬프 잉크, 종이, 드로잉 용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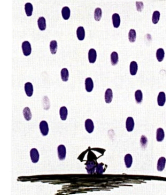
김준영(학생 작품) 지문 얼굴 이미지인 스탬프 잉크로 지문 찍은 후 사인펜으로 드로잉/각 높이 2.5cm/2016년/듀카스 원안 참고)



듀카스(Deuchars, Marion/1964~(영국) 너구리 (핑거프린트 아트/이미지 높이 4.5cm/2012년)



김예문(학생 작품) 내 손의 토끼 (종이에 포스터 물감/8월/2016년)



윤지민(학생 작품) 첫눈 스탬프 잉크로 지문 찍은 후 사인펜으로 드로잉/8월/2016년)

<그림 19> 학생들의 핑거프린트 기법 작품 사진

미진사는 판화 활동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19>는 활동 1 ‘찍기 놀이로 만드는 이야기’로 핑거프린트 아트이다. 이에 대한 참고 도판으로는 작가의 핑거프린트 아트와 관련된 학생 작품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다양한 도판은 학습자에 따라 기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활동2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장 찍기

색이 선명하고 찍기가 수월하여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판화는 판재에 뚫린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 넣어 찍는 판화이다. 칼로 오래 낸 자국과 같이 단순한 면으로 표현되며,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메시지를 티셔츠나 가방 등에 찍어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해 보자.

준비물 아크릴 물감, 투명 필름(OHP 필름), 문구용 칼, 스키치테이프, 스텐지 등



판화 특징

- **간접성** 판화는 판을 이용해 찍기 때문에 재료에 직접 표현하는 회화와 달리 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 **복수성** 일반적으로 직접 그리는 그림은 오로지 단 하나뿐이지만, 판화에 의해서는 동일한 그림을 여러 장 제작할 수 있다(단, 모노타이프는 제외됨).
- **판재에 따른 독특한 미감** 판화는 일반적으로 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판을 어떻게 이용하였느냐에 따라 독특한 재질감이 나타난다.
- **실용성** 판화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실용적인 예술이다.

- ① 김수정(학생 작품) 조류 보호 (명색에 스텐실/40x40cm/2016년)
- ② 임유빈(학생 작품) 빈민권 사랑 (티셔츠에 스텐실/2016년)
- ③ 최다솔(학생 작품) 나를 잊으셨나요? (티셔츠에 포스터 물감으로 스텐실/2016년)

<그림 20>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장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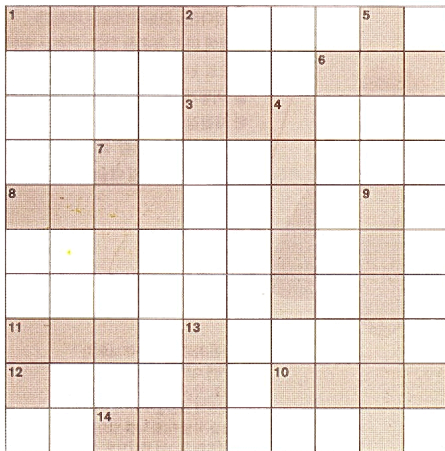
<그림 20>은 활동 2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장 찍기’이다. 공판화의 원리 및 특징을 글로 설명하며 다양한 학생 작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아쉬운 점은 스텐실 기법이 간단하다 할지라도 이를 이해하여 응용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글과 사진으로 된 제작 과정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3은 맨홀 뚜껑을 활용한 미술 활동이다. 이는 볼록판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과 연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맨홀 판화 활동 같은 경우 제작 과정을 글과 사진으로 함께 설명하여 이해가 쉬운 편이다. 다만 길에 있는 맨홀 뚜껑에 아크릴 물감을 칠한다는 점에서 찍어 낸 이후 뒤처리도 깔끔히 할 수 있도록 간단히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화 퍼즐

판화의 종류, 특징, 재료와 용구 등을 알아보고 아래 퍼즐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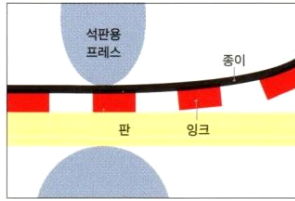
1. 판에 유채 물감이나 잉크로 그림을 그린 후 종이를 덮고 문질러 찍는, 한 장밖에 찍을 수 없는 판화
2. 판과 종이에 압력을 주어 그림이 찍히게 하는 기계
3. 칼로 오려 낸 판면에 스펀지나 솜방망이로 잉크를 문혀 찍는 판화
4. 등사판의 인쇄와 같은 원리로, 실크 천을 틀에 고정시켜 풀 또는 감광액으로 막을 형성하고 잉크를 밀어 찍는 판화의 기법
5. 볼록 판화에서 대상을 남기고 여백을 파는 방법
6. 고무, 목판화에서 판을 새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7.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해 제작하는 판화
8. 판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잉크를 채워 종이에 찍는 방법
9.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10. 일본 풍속화의 한 양식을 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발한 구도, 섬세한 선, 화려한 색 등이 인상주의 미술에 영향을 줌.
11. '판(版)'이란 뜻의 영어로, 복수로 제작된 작품을 뜻함.
12. 동판에 그라운드 나스를 바르고 철탈로 그려 부식시켜 표현하는 판화
13. 하나의 판으로 같은 작품을 여러 장 찍을 수 있는 판화의 특성
14. 종이 등에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판에 형상을 그리거나 새겨 찍어 내는 판화의 특성


출처: 1. 국립중앙도서관, 2. 국립현대미술관, 3. 한국미술사학회, 4. 한국미술사학회, 5. 한국미술사학회, 6. 한국미술사학회, 7. 한국미술사학회, 8. 한국미술사학회, 9. 한국미술사학회, 10. 한국미술사학회, 11. 한국미술사학회, 12. 한국미술사학회, 13. 한국미술사학회, 14. 한국미술사학회

<그림 21> 판화 퍼즐

미진사에서는 활동 3이 끝난 후 발전 학습인 ‘판화 퍼즐’을 제시하였다. <그림 21>에는 판화의 종류, 특징, 재료와 용구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판화 퍼즐은 판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화 퍼즐의 해설 부분이 정리와 보충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리와 보충이나 알고 가기, 부록 등에 작게나마 답과 관련한 설명을 해준다면 학습자가 판화에 대한 이해도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평판화

<p>원리와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평한 판면에 잉크를 묻혀 찍음. • 판을 새기지 않고 찍기 때문에 화학적인 표현 효과를 살릴 수 있음. • 데칼코마니 표현 또는 책과 같은 오프셋(offset) 인쇄도 평판화의 원리임. 	
<p>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판화(리소그래피) 판에 해먹, 색연필 등의 유성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아라비아고무와 같은 수성 용액으로 그림을 고착시킨 후 찍어 냄. 판화 중 가장 풍부한 회화적 표현이 가능함. • 모노타이프 판면에 직접 그려서 찍어 내기 때문에 한 장만 찍을 수 있음. 주로 유리판을 사용함. 	

<p>작품</p>		<p>① 레제(Léger, Fernand/ 1881~1955/프랑스) 곡예사 마리아(다색 석판화/ 60.6x34.6cm/1948년)</p> <p>② 고든(gordon, grady/ 1973~/미국) 찬란한 어둠(모노타이프/ 38.1x27.9cm/2015년)</p>
------------------	--	---

<그림 22> ‘정리와 보충’ 평판화 부분

미진사의 정리와 보충에는 <그림 22>처럼 판화 기법 원리와 특징, 종류, 작품에 대한 정리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 프린팅 방법 도판까지 실려있어 학습자들이 판화 기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와 보충 아래 칸에는 판화의 에디션 개념과 예시 설명글이 있는데 에디션이 적힌 판화 작품 도판이 설명글 옆에 실린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미진사 출판사의 인상 깊었던 점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했다는 것과 부족한 이론을 보충 자료를 통해 보완했다는 점이다. 타 교과서에 비해 학생 작품도 많은 편인데 정리와 보충에 작가들의 작품을 실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활동 같은 경우 활동 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활동 3개 모두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하나 정도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보가 체계적이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여러 도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구성이 잘된 교재라고 생각된다.

4) 씨마스

(1) 교과서 구성 방식

씨마스 출판사의 구성은 대단원, 소단원, 연계 활동, 스스로 정리하기로 되어있다. 씨마스는 대단원을 8개로 구성하였으며 미술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단원 표지가 따로 있지 않으나 대신 각 대단원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다. 단원의 전개는 도입, 탐구, 창작, 정리 순으로 되어있다. 소단원 도입 부분에는 소단원 주제와 관련된 핵심 질문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수업 중 핵심 질문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며 단원의 마무리인 정리하기까지 연계되는 내용이다. 학습 목표, 나의 학습 진단, 나의 학습 계획 칸은 학습자가 직접 체크하고 적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다. 단원의 탐구에서는 본문과 보조 질문, 연계 질문, 활동, 좀 더 자세히 칸을 통해 본문 내용과 연계된 질문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 활동은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활동으로 미술을 진로 직업, 창업, 국어, 지구 과학, 기술, 지리, 교육, 환경, 보건, 비평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스스로 정리하기는 연계 활동 다음에 있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단원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눈에 명시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칸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핵심 역량을 충족하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단원 핵심 질문, 핵심 개념 내용 정리, 주요 용어 정리,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판화 단원 분석

소단원은 총 20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4쪽에서 많게는 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화 단원은 대단원 ‘3 평면의 특징을 살려’에서 소단원 ‘다양한 판화 표현’으로 4쪽 분량이다. 판화 단원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판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씨마스 판화 단원 분석

대단원	3 평면의 특징을 살려		
소단원	다양한 판화 표현	쪽수	p.50~53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화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새로운 판화 형식과 경향을 알아보고 창의적으로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해적 프린터 <티셔츠, 가방>, 로트레크 <물랭 루주: 라 굴뤼>, 박구환 <한가로운 마을-해풍 2903>, 공은지 <마주보기>, 고야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몽크 <절규>(템페라), 몽크 <절규>(석판화), 박광열 <공간의 기억-문혀진 이야기1>, 고자영 <비밀 정원>, 리지 <나의 도시는 나의 친구>, 스코우 <마르케링에르>, 학생 작품 <자화상>, 학생 공동 작품 <비 오는 날의 산책>, 학생 공동 작품 <아이 러브 코리아>, 학생 공동 작품 <고개를 들어요>		



판화의 용도와 특성 다양한 종류의 판화들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판화는 판의 불룩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어 내는 **볼록 판화**, 판의 오목한 부분에 고인 잉크가 찍혀 나오는 **오목 판화**, 평평한 판면에 그린 그림을 찍어 내는 **평판화**, 판을 뚫은 곳에 잉크가 통과하여 찍히는 **공판화**로 분류된다.

작품 ①은 무용 공연을 홍보하는 포스터인데, 평판화 기법의 하나인 석판화의 회화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다. ④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내용을 오목 판화의 한 방법인 에칭으로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대량 인쇄 기술의 출현 이전에는 판화의 실용적인 목적이 중요했으나, 오늘날 대량 인쇄가 이루어지면서 판화의 고유한 예술성이 중요해졌다.

① 로트레크(Lautrec, Henri de Toulouse/프랑스/1864-1901)
 물랭 루주: 라 굴뤼(석판화/193.5×119.5cm/1891년 작)

<그림 23> 판화의 용도와 특성

씨마스는 판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학습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23>은 판화의 용도와 특성을 간략히 서술하며 현대까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씨마스는 이론을 설명할 때 색깔을 달리 표시하거나 번호를 기입하여 작품 설명을 표시하는 등 정보를 보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설명하지 못한 작품 설명은 캡션에 표기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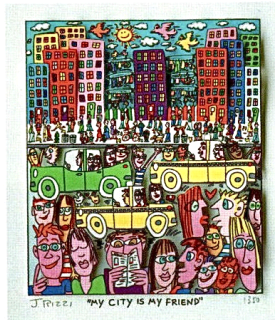
① 박광열(한국/1955~) 공간의 기억-물허진 이야기 1(수제 종이 캐스팅, 스텐프/100×50cm/2005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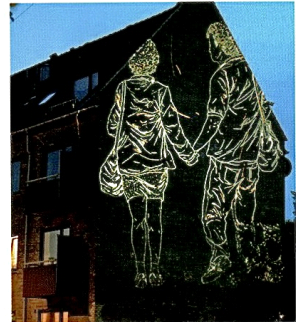
② 고자영(한국/1971~) 비밀 정원(독판화, 석판화, 수채/각 230×70cm/2001년 작)

판화의 확장 새로운 판화의 형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 미술의 흐름에 맞추어 판화에도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품 ①은 입체의 사물을 놓고 그 위에 습한 종이를 올려 형태를 떠내는 부조 기법을 사용한 판화이다. ②는 여러 가지 판화 기법과 회화 기법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을 공간에 설치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 판화는 입체와 설치 미술의 요소를 차용하기도 하고, 영상이나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며 판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리지(Rizzi, James/미국/1950~2011) 나의 도시는 나의 친구(입체 판화/40×30cm/2015년 작) - 작가가 사망한 후에 찍어 낸 작품으로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은 다음 형태를 하나하나 오리고 두께를 다르게 붙여 입체적으로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판화이다.



④ 스코우(Skou, Asbjørn/덴마크/1984~) 마르케 링에르(슬라이드 필름, 라이트, 예칭/가변 크기/2010년 작) - 오목 판화처럼 투명 판을 굽어 그림을 그린 뒤 빛을 투과시켜 벽면에 확대한 작품이다.

<그림 24> 판화의 확장

<그림 24>에서는 현대 미술 흐름과 함께하는 판화의 다양한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판에 직접 새기지 않고 입체 사물 위에 습한 종이를 올려 형태를 떠내는 부조 기법을 활용한 판화 작품, 여러 가지 회화와 판화 기법을 조합하여 설치한 작품, 투명판을 굽어 그림을 표현하고 빛을 투과하여 벽면에 확대한 작품 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 작가와 국외 작가의 작품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확장된 판화 작품들을 보여준다.

활동 방안 제시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딱딱 50분’ 처럼 학생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드록 블록판화 활동이다. 두 번째는 마무리 표현 활동으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비 오는 날의 판화 활동이다.



① 스케치하기



② 종이에 그리고 오려 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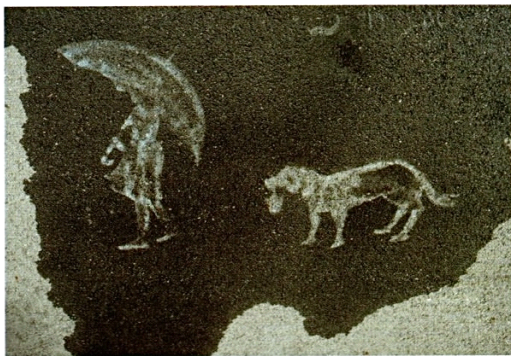
③ 방수 스프레이 뿌리기



④ 물을 뿌려 확인하기

<그림 25> 마무리 표현 활동, 비 오는 날의 판화 제작과정

<그림 25>는 마무리 표현 활동으로 비 오는 날에 만 볼 수 있는 판화 활동이다. 본 페이지에서는 미국의 한 낙서 미술가가 고안해 낸 스텐실 기법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제작 과정 및 작품들을 보기 좋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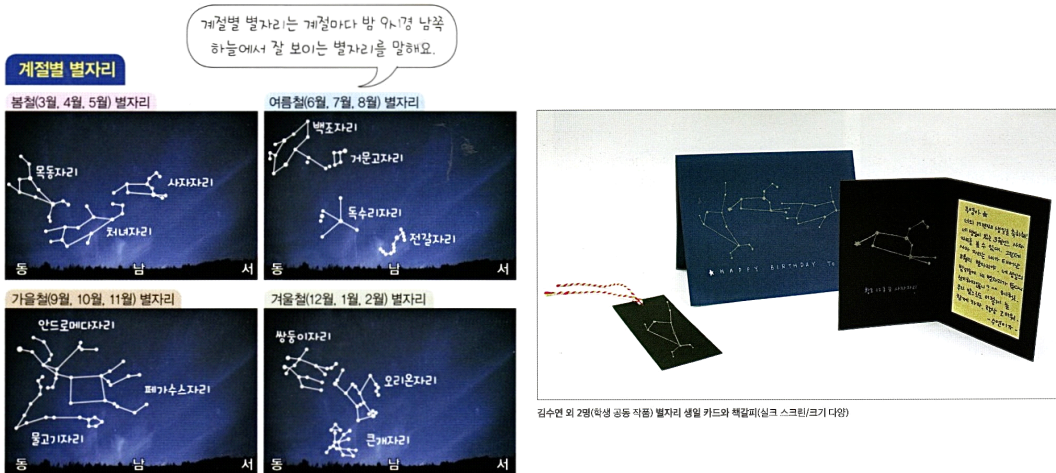
방수빈 외 3명(학생 공동 작품) 비 오는 날의 산책(방수 스프레이/50×150cm)
- 빗속을 산책하는 아이와 개의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장수연 외 4명(학생 공동 작품) 고개를 들어요(방수 스프레이/43×109cm)
- 학교 앞길에서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보며 걷느라 자동차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었다.

<그림 26> 비 오는 날의 판화 학생 작품 부분

<그림 26>은 <그림 25>의 활동을 한 학생 작품 부분이다. 이처럼 날씨를 활용한 야외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스텐실의 특징을 재미있게 학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27> 연계 활동

씨마스는 교과서의 구성상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연계 활동 및 스스로 정리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7>은 대단원 ‘3 평면의 특징을 살려’의 연계 활동인 ‘별자리 도안으로 다양한 실크 스크린 작품 만들기’이다. 연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지구 과학의 계절별 별자리 학습과 미술의 실크 스크린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판화 기법을 적용한 융합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활동에서 제시하는 감상기 재료가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점을 함께 제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씨마스 출판사는 현대에 이르러 판화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큰 틀로 잡고 있다. 씨마스의 특징 중 하나는 작품 도판의 크기를 크게 늘려 학습자들이 보는 데 불편함 없이 구성하였다는 것이고, 도판 캡션에 있는 추가 설명을 통해 학습자가 작품 내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대 판화에 대한 도판을 다양하게 수록한 점도 인상깊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가 공동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제시하여 판화의 원리를 응용한 신선한 표현 활동을 보여준 것도 효과적이다. 판화의 기초적인 용어 설명도 대단원 마무리 연계 활동 뒤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 페이지에 수록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꾸준히 돕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판화의 이론에 치중되기보다 감상과 활동을 통해 판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두었다고 보이며,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을 통해 미술 교과 역량을 높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 지학사

(1) 교과서 구성 방식

지학사 출판사의 구성은 대단원과 소단원, 부록으로 되어있다. 대단원은 바른 인성, 창의력,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는 3가지 핵심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차례대로 ‘Ⅰ 체험하는 즐거움’, ‘Ⅱ 표현하는 아름다움’, ‘Ⅲ 감상하는 마음’이다. 대단원 표지는 대단원명과 대단원 내 속해있는 소단원들이 제시되어있어 간단명료하다. 소단원의 전개는 도입, 전개, 활동, 평가 순으로 되어있으며 부족한 정보는 부록을 수록하여 보충하고 있다. 소단원 도입 부분에는 학습자의 사고 확장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학습 목표와 핵심 역량, 생각 깨우기를 제시하였다. 전개 부분에는 이론 학습을 위한 도판과 설명, 용어 노트, 지식 플러스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실어 이해를 돕는다. 활동 부분에서는 활동, 팁, 성찰 & 발전, 활동 플러스가 있다. 활동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협동 활동이 많다는 것과 성찰 & 발전 문항에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항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평가 부분은 단원 학습 후에 평가 문항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부록은 단원별로 필요한 미술 용어들과 미술사별 특징 및 미술 인명사전을 구성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부록을 미술 사전처럼 활용하여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관화 단원 분석

소단원은 총 19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4쪽에서 많게는 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화 단원은 대단원 ‘Ⅱ 표현하는 아름다움’에서 소단원 ‘5 짚어 내는 미술’로 4쪽 분량이다. 관화 단원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관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지학사 관화 단원 분석

대단원	II 표현하는 아름다움		
소단원	5 짝어 내는 미술	쪽수	p.48~51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화의 표현 원리와 종류를 탐색할 수 있다. ● 관화의 방법을 응용·확장하여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콜비츠 <직조공의 행진>, 리히텐슈타인 <나의 환상에 나타나는 멜로디>, 황규백 <발레>, 가스시카 호구사이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변월룡 <나훗카의 소나무>, 도미에 <영향력 있는 비평가의 걸음>, 위홀 <다이아몬드 가루 구두>, 김영훈 <진실은 무엇인가>, 이서미 <길을 따라 걷다>, 방인희 <센세이션 #09-2>, 윤동천 <정치가를 위한 도구들>, 최미아 <구조 장비>, 학생 작품 <관화 모빌>		

생·각·깨·우·기

- 다음 두 관화 작품을 비교해 보고, 물음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적어 보자.



콜비츠(Kollwitz, Käthe/독일/1867~1945) 직조공의 행진(에칭/21.4×29.7 cm/1893~1897년 작)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미국/1923~1997) 나의 환상에 나타나는 멜로디(실크 스크린/76.5×60.9 cm/1965년 작)

- 두 작품의 특징을 보이는 대로 적어 보자.

- 두 작품의 제작 방법을 비교해 보자.

<그림 28> 생각 깨우기

지학사 출판사는 관화의 전반적인 이론을 토대로 현대 관화의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도입부에 있는 <그림 28> 생각 깨우기는 두 관화 작품을 수록하여 학습자가 직접 두 작품의 특징 및 비교를 통해 관화의 다양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



블록 판화: 목판, 고무판, 리놀륨판 등을 이용하여 불룩하게 돌출한 부분에 찍는 판화로, 강한 명암 대비를 느낄 수 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일본/1760~1849)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다색 목판화/24×35.6 cm/1830년경)

<그림 29> 블록 판화 도판

<그림 29>는 블록판화의 예시 도판이다. 지학사는 판화 기법별 특징 및 프린팅 이미지를 작품 도판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학습자가 판화 기법을 작품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지식 플러스 현대 판화의 새로운 정의

최근에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이 발달하여 사진 전사, 레이저 커팅, 캐스팅, 컴퓨터 프린트 등 간접적인 방법과 다양한 기법을 작품에 접목하기도 한다. 현대 작가들은 '간접적으로 찍는다'는 판화의 원리를 고수하면서도 작품을 판으로 찍는다는 개념조차 모호해질 정도로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좌) 윤동천(한국/1957~) 정치가를 위한 도구들(종이 위에 레이저 빔/각 76×56 cm/2012년 작)

(우) 최미아(한국/1958~) 구조 장비(강철 레이저 커팅/각 30×0.5×240 cm/1999년 작)

<그림 30> 현대 판화의 새로운 정의

판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에서는 <그림 30>과 같이 현대 판화의 새로운 정의를 학습자에게 보충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현대 판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여겨진다. 다만 '판화의 종류'에 세계 각국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것에 반해, '판화의 다양성'에 수록된 도판은 작품 5점 모두 국내 작가이므로 세계 각국의 현대 판화 작품을 균형 있게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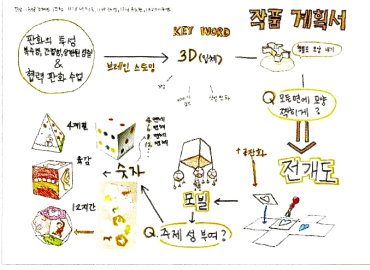
● 활동 탐색하고 표현하기

판으로 찍어서 설치하기

각자 만든 판을 하나로 모아 찍어 내고 설치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4절 도화지, 색연필, 색연필, 모눈종이, 조각칼, 나무판, 잉크, 가위, 실, 투명 테이프

제작 과정



② 판에 새길 이미지를 스케치한다.

① 모듬을 정하고 작품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판에 각자 맡은 이미지를 새긴 후 모아서 잉크를 칠 하여 찍어 낸다.

⑤ 찍어 낸 판과 작품을 오려서 입체 형태로 조립한다.



③ 조립한 판화를 천정에 매달아 완성한다.

조혜민 외 11명(학생 작품) 판화 오일(목판 인쇄 후 실지/기번 크기)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의 전개도에 각자의 작품을 끼워 넣어 하나의 설치 작품을 완성하였다.



성찰 & 발전

-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작품을 제작하였는가?
- 판화의 재료와 기법을 잘 살려 제작하였는가?
- 작품에서 수정·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스스로
다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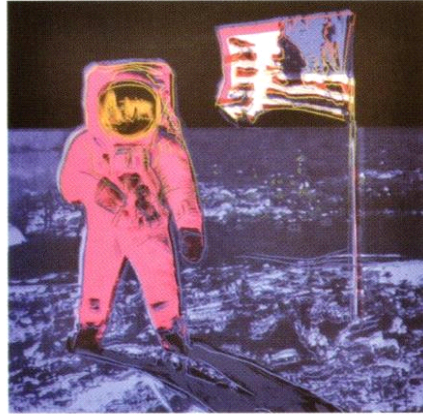
1. 다양한 판화의 표현 원리와 종류를 탐색하였는가?
2. 판화의 방법을 응용·확장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는가?

Check! ☆☆☆☆☆
Check! ☆☆☆☆☆

<그림 31> 활동 영역, ‘판으로 찍어서 설치하기’

활동 영역에서는 ‘판으로 찍어서 설치하기’ 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은 협동학습으로 판에 새길 이미지를 전개도에 찍어 모빌로 만드는 활동이다. 글과 사진의 제작 방법을 통해 활동 순서를 인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판에 그림을 새기는 중간 자료 사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준비물에 나와 있는 나무판과 조각칼에 대한 사용법을 같은 페이지에 구성한다면 학습자의 이해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판화 서명 방법과 순서: 일반적으로 판화는 작품 하단에 '에디션 넘버 / 총매수
- 작품 제목 - 작가명 - 제작 연도' 순서로 서명하며 연필로 쓴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달 착륙(실크 스크린/96.5×96.5 cm/1987년작) 팝 아티스트 워홀은 실크 스크린으로 여러 장의 작품을 찍어 냈다.

<그림 32> 부록에 있는 판화 서명 방법과 순서

<그림 32>는 지학사 부록에 나와 있는 판화 서명 방법과 순서이다. 지학사는 부록을 통해 각 이론을 깔끔한 구성으로 정리하였으며 본 단원에 넣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판화의 경우 판화 기법정리와 함께 판화 에디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판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판화 에디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를 함께 기재한다면 학습자가 에디션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학사는 판화의 이해 및 종류, 다양하게 표현되는 판화를 토대로 전반적인 판화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균형 있는 이론과 부록을 통한 판화 종류 및 에디션 순서에 관한 내용 보충을 한 점이 인상적이다. 지학사는 현대 판화의 도판을 국내 작가들의 작품으로 제시하여 현대 미술 내 판화 영역의 확장을 보여준다. 다만, 국외 작가의 도판이 없는 점과 활동 제시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학생 작품의 수가 전체 도판 수 대비 적으므로 판화 단원 내 학생 작품 도판 수를 늘려 작가들의 비중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판화 내용 구성이 이해하기 쉽게 전개되어 있으며 이에 판화의 제작 순서, 용어 설명, 활동의 다양성 등 세부적인 요소가 보완된다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천재교과서

(1) 교과서 구성 방식


천재교과서 출판사의 구성은 대단원, 각 소단원 전개, 대단원 마무리로 되어있다. 본 교과서는 학습자가 삶 속에서 미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술을 활용하여 풍성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단원은 5개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은 표지마다 소단원 소개 글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핵심 역량의 경우 미술 교과서의 핵심 역량 5가지가 기재되어있다. 핵심 역량 5가지 옆에는 점수 아이콘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대단원마다 어떤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소단원 도입부에는 학습 목표, 핵심 용어, 생각 열기를 통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 및 동기 부여를 제시하였다. 내용 학습에서는 소단원에서 알아야 할 내용 및 참고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 걸음 더 같은 경우 본문 내용이나 참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활동 부분에서는 활동 수행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는 활동 과정, 예시 작품, 활동 과정과 결과를 성찰할 수 있는 스스로 평가하기가 있다. 이에 더불어 ‘생각 더하기’는 본문과 관련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질문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단원 마무리의 경우 대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 확인하기와 스스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되돌아보기를 제시하였다.

(2) 관화 단원 분석

소단원은 총 25개로 하나의 주제가 적어도 4쪽에서 많게는 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화 단원은 대단원 ‘Ⅲ 창의적인 표현’에서 소단원 ‘07 판을 이용한 표현, 관화’로 4쪽 분량이다. 관화 단원 분석 방법은 본 소단원의 학습 내용 및 작품 도판 자료 정리, 소단원 구성 방식에 따른 관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천재교과서 판화 단위 분석

대단원	Ⅲ 창의적인 표현		
소단원	07 판을 이용한 표현, 판화	쪽수	p.72~75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화의 개념, 특징, 종류를 탐색할 수 있다. ●판화의 표현 방법을 응용·확장하여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작품 도판 자료	위홀 <캠벨 수프 캔>, 김준권 <향촌에서>, 최수연 <스텐실 스카프>, 고야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샤갈 <인어 공주와 소나무>, 윤보람 <침엽수>, 정명경 <호랑이>, <오륜행실도>, 강정현 <어딘지 모르는 곳(고속도로 위에서, 태국 방콕)>, 김영훈 <진실을 말해 줘>, 김현주 <네오-카-1002>, 스텔라 <그때 개가 와서 고양이를 물었다>, 김억 <한강-능내리>, 학생 작품 <나>, 학생 작품 <우리들>		



3. 창의적인 표현

07 판을 이용한 표현, 판화

□ **학습 목표** > 판화의 개념, 특징, 종류를 탐색할 수 있다.
 > 판화의 표현 방법을 응용·확장하여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 **핵심 용어** 블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현대 판화

<그림 33> 판화 단위

천재교과서는 소단원 제목 위 대단원을 작게 표기하여 소단원의 영역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목표 아래 핵심 용어를 적어 본 소단원에서 학습자가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할 정보를 주고 있다. 핵심 용어는 블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현대 판화로 총 5개이며 본 내용의 이론도 이를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차례대로 판화의 개념과 특징, 판화의 종류와 표현 효과, 판화의 역사, 현대 판화의 확장 순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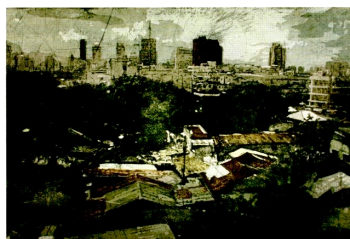


<그림 34> 생각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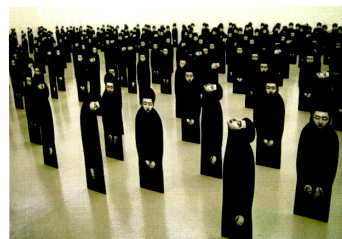
판화 영역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생각 열기’ 라는 항목이 있다. <그림 34>에는 판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캔>과 관련된 설명과 질문은 학습자가 판화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제시로 여겨진다.

현대 판화의 확장

현대 판화는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영역에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작가들은 사진, 복사, 캐스팅, 디지털 프린트 등 복수성을 가진 매체를 도입하고, 재료도 종이뿐만 아니라 금속, 나무, 유리, 플라스틱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작고 평면적이라는 판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작이나 이어 붙이기, 첨단 인쇄 공법 등을 활용하고, 입체적인 판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판화를 제작해 보자.



강정현(1978~/한국) 어딘지 모르는 곳(고속도로 위에서, 태국 방콕)종이에 에퀴먼트, 채색/60x100cm/2009년 | 부식 방식 물질을 이용하여 판을 부식시키는 에퀴먼트 기법으로 판화를 찍은 후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김영훈(1970~/한국) 진실을 말해 줘(메조틴트/가변 설치/2011년) | 판에 무수히 많은 홈집을 낸 뒤 그 흔적을 지워 가며 명암을 구현하는 메조틴트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설치 미술 형태로 전시하였다.



김현주(1969~/한국) 네오 카-1002(디지털 프린트에 석판화/65x90cm/2010년) | 자동차와 구겨진 신문지를 촬영하여 합성한 이미지를 인쇄하고, 그 위에 석판화 기법으로 색을 입혔다.



스텔라(Stella, Frank/1936~/미국) 그때 개가 와서 고양이를 물었다(종이에 석판화, 실크 스크린, 채색 및 플라주/130x131cm/1984년) | 다양한 판화 기법으로 찍은 종이를 재단하여 이어 붙이고 채색을 더하였다.

<그림 35> 현대 판화의 확장

현대 판화의 확장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판화를 소개하고 있다. 매체 도입 및 다채로운 재료 활용을 통한 확장된 판화 작품들은 본 내용과 함께 적합한 예시가 되고 있다. 다만 작가의 작품 캡션에 작품 제작 방법만 적혀있어 작품 주제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걸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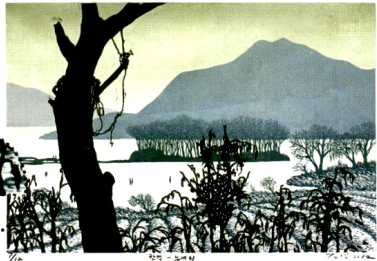
▶

판화의 에디션 넘버

판화는 하나의 판으로 여러 장을 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와 제목을 쓰고 서명을 한다. 시험용 판화를 찍은 뒤 계획한 매수를 찍어 내는 것을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판화에 매기는 일련번호가 '에디션 넘버'이다. 예를 들어 '7/12'이라는 표시는 총 열두 장 중에서 일곱 번째로 제작한 판화라는 뜻이다.

▶ 판화와 관련된 용어를 더 알아보자.

김역(1958~/한국) 한강-농내리
(목판화/61×91cm/2012년)



<그림 36> 판화의 에디션 넘버

‘한 걸음 더’에서는 <그림 36>과 같이 판화의 에디션 넘버에 대해 제시하였다. 에디션 넘버에 대한 제시는 판화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이론 정보이며 작가의 서명 도판을 함께 보여준 점도 바람직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에디션 종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추가로 수록한다면 학습자가 판화 에디션에 대한 다양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활동 과정



1 사진 촬영하기



2 컴퓨터로 이미지를 편집하여 단순 화하고 투명중이에 출력하기



3 실크 천에 감광액 바르기



4 실크 천에 사진 이미지 올리기



5 감광하기(60~160초)



6 감광액을 물로 씻어 내기



7 스퀴지로 잉크 밀어내기



8 완성하기

<그림 37> 활동 01 ‘공판화 기법으로 인물 군상 제작하기’

활동으로는 ‘공판화 기법으로 인물 군상 제작하기’가 있다. 준비물과 유의 사항, 활동 과정 등 필요한 정보들이 가독성 있게 나열되어 있어 보기가 편하다. 다만 인물 군상 제작하기 활동은 감광기를 다루고 있기에 감광기가 없는 학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활동이 될 수 있다. 천재교과서는 이에 대해 감광기 사용을 대체할 만한 방법으로 투명 종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투명 종이 사용에 대한 도판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투명 종이를 사용한 도판 자료를 넣거나 혹은 감광기 없이 실크 스크린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자료를 보완한다면 더욱 짜임새 있는 판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천재교과서는 판화의 개념부터 종류, 특성을 놓치지 않고 제시하였으며 판화의 확장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도판의 배열도 글과 어우러지게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다. ‘한 걸음 더’를 통해 판화의 역사와 에디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학습자가 판화에 대한 작품 감상 외에도 생각할 자료를 보충해 준 점도 적합하다. 현대 판화의 확장 같은 경우 단순히 판화 도판만으로 설명을 끝내는 것이 아닌 판화가 어떤 매체들과 재료를 통해 평면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판화의 확장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국내와 국외 작품을 두루 제시하여 도판 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좋은 구성 방식이다. 전반적으로 판화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판화 활동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대해 활동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판화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판화 단원이 있는 6종의 교과서 내 판화 단원 내용 분석을 통해 같은 판화 영역 내용이라도 출판사별 판화 이론 전개 방법과 판화 기법별 도판 비중, 활동 제시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식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이 출판사별 판화 단원에 대한 구성 및 전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절은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 판화 원리 도판 수록,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 수록을 살펴보려고 한다.

5.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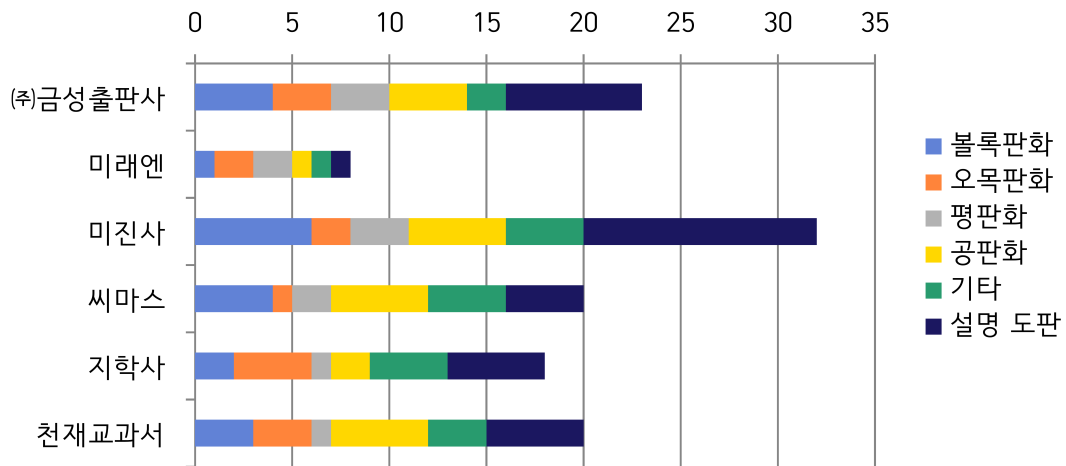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판화 단원이 있는 교과서 6종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출판사별 판화 영역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1)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은 교과서 6종의 판화 기법별 도판을 세분화하여 이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같은 판화 분류 내 기법 사용 시 셀을 하나로 합쳐 표기하였으며 각각 다른 판화 기법 사용 및 디지털 매체 활용은 ‘기타’로 표기하였다.

<표 14> 판화 단원 도판 영역 분석

판화의 분류 및 기법		출판사							
		(주)금성출판사	미래엔	미진사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과서	계	
블록 판화	목판화	1	1	1	1	2	3	9	
	고무, 우드락, 리놀륨 판화, 기타	3	0	5	3	0	0	11	
	지판화	0	0	0	0	0	0	0	
오목 판화	새 김 법	인그레이빙	1	0	0	0	0	0	1
		메조틴트	2	0	1	0	1	1	5
		드라이포인트	0	1	0	0	1	1	3
	부 식 법	에칭	0	1	1	1	2	1	6
		에퀴틴트	0	0	0		0		
평판화	석판화	2	1	1	2	1	1	8	
	모노 타입	1	1	2	0	0	0	4	
공판화	스텐실, 실크 스크린	4	1	5	5	2	5	22	
기타	기타 및 기법 융합	2	1	4	4	4	3	18	
설명	설명 도판	7	1	12	4	5	5	34	
계		23	8	32	20	18	20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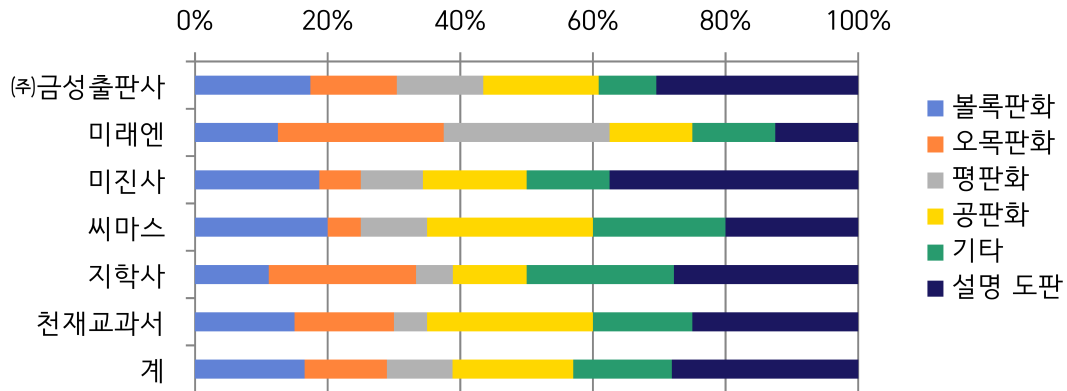


<그림 38> 판화 단위 도판 영역 분석

판화 단위 도판 영역을 분석한 결과 도판 수로는 미진사가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주)금성출판사가 23개, 씨마스와 천재교과서가 각각 20개, 지학사가 18개, 미래엔이 8개의 도판을 구성하였다. 미래엔의 경우 8개로 가장 도판이 적으나, 타 출판사에 비해 교과서 내 단원이 짧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출판사별 판화 단위 내 도판을 살펴본 결과 모든 출판사가 현대 판화 도판을 상세히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미래엔의 경우 디지털 프린트를 한 판화 도판을 실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일어나는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으나 이외에 확장된 판화 영역에 대한 도판은 실려있지 않았다. 이에 현대 작가들의 판화기법을 활용한 확장된 판화 작품 도판 자료가 필요하다. 미진사 또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현대 판화 작품 도판들의 자료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출판사별 판화 단위 내 기법을 분류하여 판화 기법별 작품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판화 단위 도판 중 기법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분석한 결과 비중이 큰 차례대로 설명 도판이 28.09%, 공판화가 18.18%, 블록판화가 16.52%, 기타가 14.87%, 오목판화가 12.39%, 평판화가 9.91%이다. 설명 도판이 가장 높게 측정된 까닭은 단위 내 판화 기법별 원리 설명 및 프린팅 도판 수록의 이유가 크다. 출판사별 판화 단위 내 기법 분류는 다음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판화 단위 내 기법 분류

(주)금성출판사는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 도판이 30.43%, 블록판화와 공판화가 각각 17.39%, 오목판화와 평판화가 각각 13.04%, 기타가 8.69%이다.

미래엔은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오목판화와 평판화가 각각 25.00%, 블록판화, 공판화, 기타, 설명 도판이 각각 12.50%이다.

미진사는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 도판이 37.50%, 블록판화가 18.75%, 공판화가 15.62%, 기타가 12.50%, 평판화가 9.37%, 오목판화가 6.25%이다.

씨마스는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공판화가 25.00%, 블록판화, 기타, 설명 도판이 각각 20.00%, 평판화가 10.00%, 오목판화가 5.00%이다.

지학사는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 도판이 27.77%, 오목판화와 기타가 각각 22.22%, 블록판화와 공판화가 각각 11.11%, 평판화가 5.55%이다.

천재교과서는 단위 전체 도판 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공판화와 설명 도판이 각각 25.00%, 블록판화, 오목판화, 기타가 각각 15.00%, 평판화가 5.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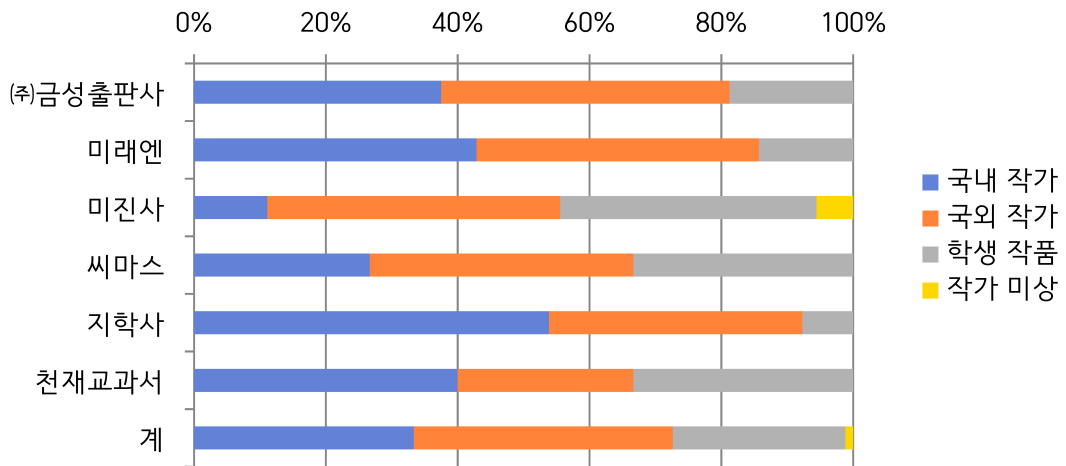
본 판화 단위 도판 영역 분석은 전체적으로 설명 도판이 높게 집계되었다. 또한 출판사별 판화 기법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진사와 씨마스는 오목판화 비중을, 지학사와 천재교과서는 평판화의 도판 비중을 높여 판화 기법별 균형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관화 작품 작가별 분류

미술 교과서 관화 단원별 도판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도판은 학생들에게 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자료이므로 관화 도판별 균형 있는 제시가 필요하다. 작가별 분류는 작가별 작품을 분류하여 다양한 작가가 균형 있게 실렸는가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음 <표 15>는 관화 작품을 국내 작가, 국외 작가, 학생 작품, 그리고 작가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작가 미상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출판사별 작가 비중은 <그림 40>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15> 관화 작품 작가별 분류

출판사 \ 작가	국내 작가	국외 작가	학생 작품	작가 미상	계
(주)금성출판사	6	7	3	0	16
미래엔	3	3	1	0	7
미진사	2	8	7	1	18
씨마스	4	6	5	0	15
지학사	7	5	1	0	13
천재교과서	6	4	5	0	15
계	28	33	22	1	84



<그림 40> 관화 작품 작가별 분류

(주)금성교과서는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외 작가가 43.75%, 국내 작가가 37.50%, 학생이 18.75%이다. 학생 도판 수의 비중이 작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엔은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내 작가와 국외 작가가 각각 42.85%, 학생이 14.28%이다. (주)금성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생 작품의 비중이 작았다.

미진사는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외 작가가 44.44%, 학생이 38.88%, 국내 작가가 11.11%, 작가 미상이 5.55%로 국내 작가의 도판 수가 매우 부족하였다.

씨마스는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외 작가가 40.00%, 학생이 33.33%, 국내 작가가 26.66%로 앞서 살펴본 출판사들에 비해 균형 있는 도판 비중을 알 수 있었다.

지학사는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내 작가가 53.84%, 국외 작가가 38.46%, 학생이 7.69%로 불균형한 비중을 띄었으며 학생 작품의 비중이 필요해 보인다.

천재교과서는 전체 작가 수 중 높은 순서대로 국내 작가가 40.00%, 학생이 33.33%, 국외 작가가 26.66%로 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출판사의 총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 결과는 국외 작가가 전체 비중의 39.28%, 국내 작가가 33.33%, 학생이 26.19%, 작가 미상이 1.19%로 비중이 고루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별 비중이 가장 적절하게 분배된 교과서는 씨마스와 천재교과서였다. (주)금성출판사와 미래엔, 지학사는 전체 도판 내 학생 작품 도판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고, 미진사의 경우 타 출판사에 비해 학생 작품을 가장 많이 실었으나 국내 작가의 판화 도판 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해 보인다.

3) 판화 원리 도판 수록

판화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원리 숙지가 중요한 영역이다. 다음은 판화 원리 도판을 수록한 교과서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16> 판화 원리 도판 수록

출판사 판화의 분류	(주)금성 출판사	미래엔	미진사	씨마스	지학사	천재 교과서
블록판화	○		○		○	○
오목판화	○		○		○	○
평판화	○		○		○	○
공판화	○		○		○	○
기타	○		○		○	○
계	5		5		5	5

(주)금성출판사, 미진사, 지학사, 천재교과서는 모두 블록판화와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에 대한 원리 도판을 수록하고 있었다. (주)금성출판사, 미진사, 지학사, 천재교과서의 기타는 판화 에디션과 관련한 도판으로 학습자의 판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미래엔 같은 경우 판화 원리 도판을 수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씨마스의 경우 판화 종류에 대한 설명과 도판이 실려있으나 판화 원리에 대한 도판이 없어 이에 대한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현대 판화의 확장된 영역 도판은 단원 내 실려있었지만 이에 대한 원리 도판 설명을 실은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판화의 디지털 매체 활용은 작가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규정된 원리 방식을 교과서에 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판화가 현대 미술 내에서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적합한 자료로는 작가의 제작 방식 도판이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판화 제작 활동을 신는다면 이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이에 연계하여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 수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판화의 분류와 기법을 함께 표기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표 17>과 같다.

4)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 수록

<표 17>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 수록

판화의 분류 및 기법		출판사	(주)금성출판사	미래엔	미진사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과서
블록 판화	목판화						○	
	고무, 우드록, 리놀륨 판화, 기타	○		○○	○			
	지판화							
	에칭 블록판화							
오목 판화	새 김 법	인그레이빙						
		드라이포인트		○				
		메조틴트						
	부 식 법	에칭						
		에퀴틴트						
평판화	석판화							
공판화	모노 타입							
	스텐실, 실크 스크린	○○		○	○○		○	
기타	기타 및 기법 융합							
계		3	1	3	3	1	1	

※ ○는 1개, ○○는 2개를 의미함.

<표 17>은 판화 단원 활동 제작 방식의 분류·분석을 통해 출판사별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활동 제시가 많은 출판사는 차례대로 (주)금성출판사, 미진사, 씨마스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과서가 각각 1개로 가장 적었다.

(주)금성출판사는 ‘스텐실 가방 만들기’와 ‘우드록 판화 제작하기’ 활동들을 통해 스텐실과 블록판화 기법 활용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알고 가기’에서 ‘실크 스크린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진사는 ‘찍기 놀이로 만드는 이야기’로 블록판화의 원리를 활용한 활동,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장 찍기’로 일상생활에 공판화 원리를 활용한 활동, ‘맨홀 판화’를 통한 블록판화 활용 활동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학습자가 따라 하기 쉬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활동이 하나 대체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씨마스는 ‘새로운 판으로 작업하기’ 로 우드록 판화 활동, ‘비 오는 날의 판화’ 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야외 활동, 지구 과학과 융합한 ‘별자리 도안으로 다양한 실크 스크린 작품 만들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습자가 활동하기에 신선하고 즐거운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되어있으며, 특히 지구 과학과의 융합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걸맞은 융합 교육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엔은 ‘다색 드라이포인트 제작 과정’ 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한 자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학사는 ‘판으로 찍어서 설치하기’ 로 블록판화를 이용하여 종이에 찍어 내고 이를 입체 종이로 만들어 모빌처럼 다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입체 작품을 만드는 점은 흥미로운 구성 방안이지만, 준비물에 조각칼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용법 및 숙지사항을 옆에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천재교과서는 ‘공판화 기법으로 인물 군상 제작하기’ 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활동 도판에서는 감광기를 사용한 예시를 들고 있으며 사진 감광기 이용이 어려울 시 투명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보완하였다. 다만 활동이 한가지이고 감광기 자료 도판만 있다는 점에서 투명 종이를 사용하는 도판도 함께 실린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판화 단위 도판 영역 분석,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 판화 원리 도판 수록, 판화 단위 활동 제작 방식 수록을 통해 판화 단위별 세부 내용 분석을 살펴 보았다. 항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별 분류를 통해 부족하거나 없는 도판 수 및 기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판화 작품 작가별 분류를 통해 작가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판화 원리에 대한 도판이 실리지 않은 교과서 2종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판화 단위 활동 제작 방식 분석을 통해 출판사별 좋은 예시를 찾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섯째, 판화 단위별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판화 재료에 대한 도판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현대 사회는 디지털 매체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의 많은 것들이 과학기술로 대체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재상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인재상을 요구한다. 이는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인재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판화는 타 분야와 융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본문의 주제인 판화 영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해 오고 있는 실용적인 분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현대 미술에서도 판화는 디지털 매체와의 융합을 통해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5 개정 인정 교과서인 ‘일반 선택’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총 10종을 토대로 판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된 집필진 전공 분석을 통해 판화 전공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미술 내 판화가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10종의 미술 교과서 중 판화 단원을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가 4종 있었다. 판화 단원을 수록할 시 판화 이론 및 기법별 도판 수록을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판화 단원에 대한 긍정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판화 영역 도판 내 균형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판화는 기법별 재료 사용법 및 특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지도가 필요하다. 영역 내 균형 있는 도판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판화 단원별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판화 재료에 관한 도판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판화가 간접 표현 미술이라는 특성이 있는 영역인 만큼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바이며, 학습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재료 도판에 대한 자료가 교과서 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대 판화 도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화 단원 내 확장된 판화 영역에 관한 설명과 작품을 가독성 있게 구성한 출판사도 있었지만 없는 출판사가 더 많았다. 판화 단원이 없는 출판사들의 경우 판화 이론에 대한 짜임새 있는 영역 제시 및 구성이 어려우므로 부족한 부분이 더욱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현대 미술 내 판화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시대 흐름에 맞는 매체를 활용한 판화 도판 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필자는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판화 영역 분석을 통해 판화 영역이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비록 교과서 내 영역 편성이 균일하게 나누어지는 특성상 판화 영역이 많은 내용을 다 수록할 수는 없다는 점은 당연한 부분이다. 하지만 판화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합한 판화 이론 및 도판을 선별하여 할당받은 범위 내 짜임새 있는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화 영역은 20여 년 전부터 이미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미술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미술 교과서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개정 교과서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판화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동시대의 열린 판화교육을 통해 더욱더 다양하고 확장된 시각으로 미술 영역을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곽남신(1994), 「목판화와 동판화= Relief & Intaglio」, 도서출판 예경.
- 구자현(1989), 「版畫 =Print making :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 미진사.
- 국립현대미술관(2020), 「판화, 판화, 판화」, 국립현대미술관.
- 류재만·손지현(2017), 「미술과 교재연구 및 교수법」, 교육과학사.
- 박정환(2019), 「종이판화」, 디자인숲.
- 윤옥한(2021), 「삶은 현대 교육과정론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임영길(2014), 「판화」, 미진사.

< 학 술 논 문 >

- 송대섭(2004), “모노 타입과 모노 프린트의 판화 매체적 특성 연구”, 「조형예술학연구」, 제11권, 한국조형예술학회.

< 학 위 논 문 >

- 김민식(2010),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스템 디자인 연구 -선형블록과 양각사인 시스템의 유기적조합-”,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박기훈(2008), “디지털 시대의 판화”,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훈이(2007), “미술 교과서의 판화분야 내용 분석 연구-고등학교 「미술과 생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이연(2017), “현행 중학교 미술 교과서 판화영역 분석을 통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판화지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미영(2010), “판화를 통한 창의적인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과 서>

- 김형숙 외, 고등학교 미술, (주)교학도서, 2018.
서예식 외, 고등학교 미술, 해냄에듀, 2018.
심영옥 외, 고등학교 미술, 와이비엠, 2018.
안혜리 외, 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2018.
이창구 외, 고등학교 미술, 미진사, 2018.
장지성 외, 고등학교 미술, 천재교과서, 2018.
조우호 외,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2018.
조익환 외, 고등학교 미술, 씨마스, 2018.
최찬경 외, 고등학교 미술, (주)금성출판사, 2018.
현영호 외, 고등학교 미술, 비상교육, 2018.

<사 전 류>

- 월간미술 편(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교 육 부 고 시>

-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참 고 사 이 트>

- PACE, 「키키 스미스 세상의 빛」 <https://www.pacegallery.com/>, 2023년 11월 23일.
Seoul Art Guide, 「오민예 작가 벽에 새긴」, <https://www.daljin.com/>, 2023년 11월 22일.
Youtube, 「강애란 작가 판화」, <https://www.youtube.com/>, 2023년 11월 24일.
네이버 지식백과, 「리프트 그라운드」, <https://terms.naver.com/>, 2023년 11월 20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점자」, <http://m.kbufac.or.kr/>, 2023년 11월 26일.

<Abstract>

Analysis of the Printmaking Area
of High School Art Textbooks revised in 2015

Min-Seo Park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l-Sam Son

The area of printmaking has been developed with close relationship with people's lives since ancient times. Prints are of great significance as a medium that provided information to people, and we can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background of the times through records about them. As printmaking has been useful to people along with the history of printing, printmaking is in charge of such great use that it can be easily seen in our daily lives even in modern times. Examples include banknotes containing complex printing techniques such as flat plates, platelets, and typography, electronic device circuits printed with patterns through silk screens, clothes and bags coated with silk screens, and offset printing books using the principle of flattening. In addition, printmaking is steadily developing not only in our daily objects but also in the field of art. In modern art, where the boundaries of art are broken down, printmaking is moving toward an

expanded area from works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to works of fusion with other genre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resented the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 Award', and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art curriculum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paper focuses on fostering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through self-directed art activit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for learners to examine their surroundings, understand the visual and cultural values of society, and expand the media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subject. The printmaking area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y to integrate and expand with other fields because various expression methods can be learned according to the techniqu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ntma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printmaking area is structured in the textbook by classifying 10 types of 'general choice' art textbooks, which are accredited textbooks for the 2015 revision.

This study is composed of a total of 4 large frames. Chapter I talks about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Chapter II present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printmaking. Chapter III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printmaking area of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art textbook. The detailed items for this consist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rt area, the analysis of the authors, the ratio of the print area by publisher, the analysis of the print section in the textbook, and the analysis of the details by the print section. Chapter IV presented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s the last chapter.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of the printmaking area of high school art textbooks revised in 2015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printmaking majo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vided writers' majors.

Second, out of 10 art textbooks, there were 4 textbooks that did not include printmaking unit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sent balanced data in the printmaking area.

Fourt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tails of each print uni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printmaking material.

Fifth, research on modern printmaking is needed.

Textbooks are books compiled for use in schools and are the main textbooks containing the curriculum. Textbooks are a medium that helps teachers and learners improve their learning in the school field, so how to organize them is very important. Art textbooks should reflect the culture of the times as important materials for art classes and sh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learners to cultivate their knowledge.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printmaking area in art textbooks did not reflect the situation and culture of the times. It was regrettable in this respect, and the need for print education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art textbooks became urgently recognized. Since printmaking is a medium that can easily be fused with other genres, a variety of creative art can be expected. Therefore, we hope that through positive consideration on the merits of these printmaking, various materials for the expanded printmaking area will be composed within the textbook. Through this, learners can view art from an open perspective and develop creative and expanded thinking based on art textbooks in line with such creative and convergence education.